

그들만의 性?
우리들의 性!

제5대 고려대학교 여학생 위원회



그들만의 성?

“그들만의 성? 우리들의 성!!”

3

- 권두시 — ‘목소리를 위한 시간’

5

- “그들만의 성? 우리들의 성!”을 개최하며
— 제5대 여학생위원회 위원장

“이중적 성인식, 그 단절의 벽을 넘어”

7

- 강의록 — 대학인의 성인식과 성문화

21

- 남성과 여성의 성인식과 성교법

29

- 성폭력의 실태와 그 심각성

37

- 올바른 성저식을 위하여

우리들의 성!!

“다시보는 여성학 도서”

51

- 여성학 추천 도서 및 머리 소개

“3+1, 그 환상의 체험”

68

- 여성영화,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78

- 여성의 눈으로 읽는 단편여성영화

— 〈동네 여자들〉, 〈생강〉,

〈한겨울 이야기〉, 〈WELCOME〉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85

-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 詩

이성애

목소리를 위한 시간

제각기 빛을 띤 목소리와 더불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지.
나지막이 속삭이는, 혹은 낭랑한
넓은 강처럼 깊이 울리는 혹은
풀잎 길에 닿는 바람처럼 섬세한
수만 가지 빛의 목소리는
언제든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누가 우리 목소리를
한 빛으로 물들이려 했는지
누가 단조로운 악보를 던져주었는지
그 가락에 우리를 길들였는지.
보이지 않는 겉박으로 목소리의
반짝이는 파장을 죽이고 자신만의
노래를 죽이고 마침내
노래의 뜨거운 씨앗을 캄캄한 구덩이에
깊이깊이 묻어버린
그 손은 우리 아버지의 손인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조상의 손인가
우리 이웃의 무지한 손인가
아니 그들보다 무서운

겉백하고 무심한 우리 자신의 손
여악하고 비겁한 나의 손이 힘을 합해
부르는 목소리 감의 목줄기를
날마다 조금씩 졸랐지
날마다 조금씩 편안한 가락에 길들여져
우리 몸짓도 조그맣고 평안하였지

그 소리마저 그쳐 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어둠에 잠겼지
그러나 편안한 어둠으로 달콤함 마취로,
금식일 수 없는 핏망울이 자바
마침내 터져버린 상처의 어둠이
어딘가를 적시기 시작했지
그 바닥에서 되살아나는 빛,
쓰러지며 되적이며 되살아나는 빛,
지금 그 파란 빛을
혼의 집중으로 견져낼 때,
제각기 싹트는 목소리 그 섬광
높은 음 다한 곳과 낮은 음 다한 곳
그 사이 무한한 공간을 더듬어
부딪치며 깨어나며 구비구비 겨루어
제각기 익혀가는 갖가지 노래
그 떨림으로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땅을 위하여.

● 그들만의 성?

우리들의 성!을 개척하며 ●

과연 여성의 목소리가 존재해 왔는가?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세상에 과연 여성이 존재했던 적이 있었는가?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철저하게 타자화되어 존재해 온 여성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차츰 우리의 귓전을 맴돌고 있다.

性は 본능적인 것이기에 즐기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진다.
이미 우리는 '성해방'의 구호와 함께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性에 대한 모든 행위들에 족쇄를 채우던 시절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성적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젠 자유다!" 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해방이 자리잡고 있는 걸까?
혹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性.
권위로부터의 간섭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性 속에도
여전히 주체와 타자의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남성만을 보수의 굴레에서 해방시킨 채,
여성을 여전히 성적 대상으로 묶어 두는
절름발이 해방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구에서 밀려온 '성해방'의 담론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국 사회가 성적으로 지나치게 보수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영역만을 말하는 것일 뿐,
이미 한국 사회의 성문화는 해방(?)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대학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인들 또한 매매존과 거리가 멀지 않으며,

전화방 등의 상품화된 性이 대학가 주변에 늘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대학은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드러내고 있는 이중성과
그 속에서 여성의 성이 억압받고 소외되는 현실을 고발하려 한다.

이제, 제5대 여학생위원회는
대학인의 성인식과 성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그 동안 고대를 배회하던 성 담론을 제자리에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 속에서 쓸데없는 금기의 벽과

그 벽이 만들어 낸 반대 급부로서의
과도한 집착의 담도 쓰러뜨리고자 한다.
또한 현 사회의 성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얼마나 억압적인지를 밝혀 내고자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너무나 고모하고 오뎅 역사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선배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대부분이 이러한 분리와 차별 그리고 막힘을
본성적인 것으로 내면화하고 있다.
그 속에서 여성은
단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유형의 사고와 삶을 살 것을 강요받고,
다양한 삶의 선택의 폭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부당함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성인식과 성문화를 냉혹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당당함으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차별적인 논리들에 저항하자.
그들만의 性을 우리 모두의 性으로!



1997년 5월 19일
제 5대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위원장 최선영

성인식과 성문화

1.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성 개념

우리는 성하면 '성욕', '성기', '성행위' 등을 연상하게 되면서 생물학적 본능, 혹은 특정 신체구조의 결합으로 성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식의 성에 대한 이해는 성을 자연적인 것, 타고난 본능에 지배되는 것으로 보고 모든 문화와 역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으로 본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와 같이 본능으로서의 성, 성기결합으로서의 성으로 성을 개념화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는데 이러한 식의 개념화는 성을 단순히 생리현상으로 보므로써 성과 사회와의 연관성을 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성의 영역을 축소시켜 다양한 성적인 행위와 관행들을 다루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남녀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문제가 있다.

성을 개념화할 때 생물학적인 본능으로 본질화하게 되면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남성은 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성적 충동을 가진 존재이며,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성적 특성을 가진 존재인 반면 여성은 무성적이고 수동적인 성적 존재라는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남녀 비대칭적인 본능에 대한 신화에 도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남녀의 비대칭성은 본능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라고 생각하게 하며, 설사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생물학적인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을 성기의 결합이라는 개념으로 축소시키면 남성의 성기인 페니스를 중심으로 성을 규정하게 되어 성기 삽입이 없는 다양한 성적인 행위를 성의 영역에서 배제시키며, 임신과 출산과 성의 연결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성(sexuality)이란 성기 및 생식기관을 포함하는 다양한 신체구조, 성적인 욕망, 사랑, 친밀감, 쾌감 등의 심리구조, 바람직한 성과 바람직하지 못한 성을 분류하는 사회규범들, 그리고 가족, 결혼제도 및 정치, 경제, 법체계 등의 다양한 사회조직들에 의해 지지되며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사회적 구성물로서 성을 개념화한다는 것은 성이란 사회, 문화, 역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면서 그 의미나 관행들이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이 어떠한 본질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사회구조의 변화나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성문화를 건설할 수 있다는 가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성은 자연적이고 중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 내의 다양한 세력들이 개입하여 각축을 벌이는 권력의 장임을 의미한다. 이는 성이란 역사적으로 국가, 교회, 정치, 경제적인 권력 등이 작동하면서 성에 대한 규제와 의미를 생성해내는 정치적인 영역이므로 우리는 성에서의 지배와 통제라는 문제에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사회의 성문화, 특히 남녀 대학생의 성문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 문화적 산물로서의 성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 대학생 남녀의 성인식과 성문화의 실재를 살펴보고, 이러한 성문화에서의 남녀의 성을 비대칭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방식을 분석해보고, 나아가 대안적인 성문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남녀 대학생의 성인식과 성문화

이 부분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성인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형성하는 성문화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녀 대학생을 대상

으로 성욕에 대한 인식, 성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성인식 과정, 성관계에 대한 인식과 실제 경험, 그리고 이들이 가지는 여성관/남성관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 하여 남녀간의 성인식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일부 남녀 대학생들의 성인식과 성경험은 아래에서 일반화하는 방식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남녀 대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성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남학생

a. 성욕



남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생물학적인 본능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자신의 욕망을 '원초적 본능', '강력하고 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느끼게 되면서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된다. 이들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로 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적인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것은 이들에게 상당한 억압으로 다가오고 있다. 남학생들은 성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직접적인 성행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엄격한 금기 때문인지 자위행위나 성행위시 죄의식을 갖거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b. 성인식 과정

남학생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과정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여 중, 고등학교 시절에 집중되어 있다. 주로 성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나, 음란 사진, 만화, 포르노 필름, 잡지 등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남성의 성적

이미지와 성적인 기술 등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성인식 과정은 이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인식 과정에서 남학생들은 남성은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고 사회화되는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성적인 지식을 가질 것, 성경험이 많을 것, 강한 성적인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믿게 된다. 또한 성관계에 있어서 사랑, 친밀감, 배려 등의 정서적 측면을 고무시키는 지식보다는 단순히 쾌락을 증대시키는 기술에 치중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c. 성관계에 대한 인식

남학생들은 대체로 성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의 해소를 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성과 사랑이 분리된 경우나 육체적 쾌락과 정서적인 친밀감이 분리된 성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자신의 성경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도 없었다', '쾌락을 느낀 것도 아니었다', '죄의식을 느꼈다'는 식의 이중적인 느낌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국에

는 이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들은 남성의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많이 갖고 있었으며, 실제로 다수의 남학생들이 실제로 성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주로 대학시절이나 군입대 전 및 군복무시기에 성경험을 하였으며, 성관계의 대상은 매매춘 여성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애인인 경우도 다수였다. 소수의 남학생들은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성관계를 자제하며 동정을 지키는 경우도 있었다.

d. 여성관

남학생들은 여성은 성적인 욕구를 별로 갖고 있지 않으며,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아는 것이 별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때로는 여성들은 무한한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의 이분화된 여성관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남학생들은 전자의 여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혼전순결은 남성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실제로 성경험이 많은 남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남

학생이 결혼은 순결한 여성과 하고 싶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혼전 순결을 강력하게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혼전순결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결혼 후의 정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여학생

a. 성욕

여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인식하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설사 인식한다고 해도 성욕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이를 수용하기를 거부한다.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는 것 또한 정숙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무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기만 하는 상태이다.

b. 성인식 과정:

여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성

교육 통로와 부모를 통해 순결교육과 여성의 생리와 생식에 대한 교육만을 받게 된다. 여성이 성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여성답지 못한 것으로 보고 성에 대해 알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인식한다. 때로 여학생들도 성에 대한 지식을 입수하기는 하지만 이는 주로 친구들이나 여성지 등을 통해 '여성은 성적으로 무지할수록, 성에 대해 소극적일수록 여성답다' 식의 남성이 규정한 여성의 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성적으로 무지하며, 순결을 지키기 위한 노력만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

c. 성관계에 대한 인식



여학생들은 여성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금기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들은 성관계에 대한 동경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성경험을 하기 보다는 로맨스, 연애 등에 대한 동경을 하는데 그친다. 실제로 연애과정에서 이들의 성경험은 키스나 애무 정도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애인과의 사귀에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여학생들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여학생들은 성과 사랑, 결혼의 연속선상에서 성관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육체적인 성적 욕구의 해소가 목적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의 확인 또는 성적인 친밀감의 지속을 목표로 하는 성관계를 중시한다. 여학생들은 피임이나 임신, 낙태 등은 여성의 일이자 여성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많은 경우의 여학생들은 성관계에 대해 의식과 실제 경험사이의 괴리가 발견된다. 최근에 여학생들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담론들에 접하게 되면서 여학생들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경우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머리로는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의 경험에서는 성관계를 자신의 미래와 연결 지으면서 결혼에 불이익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성관계를 갖지 않는 이중성을 보인다.

d. 남성관

여학생들은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남성은 어떤 측면에서는 존경할 만한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남성의 성적인 매력보다는 남성의 능력이나 자질, 직업 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관계에서 남성은 적극적, 주도적이어야만 남성답다고 보며, 이와 연관되어 남성의 동정은 여성의 순결만큼이나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러한 남녀 대학생의 성인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구성하는 성문화는 남성 중심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남녀 대학생의 성문화는 남성은 성적으로 강한 본능을 가진 존재이므로 성관계 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나아가 혼전의 성관계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

로 여겨진다. 반면 여성은 무성적인 존재이며,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열등한 역할을 해야하고, 따라서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구상된다. 그렇다면 왜 남녀 대학생은 이와 같이 왜곡되고 비대칭적인 성인식을 갖게 되는 것일까? 이 문제를 다음에서 한국사회의 성문화 분석을 통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3. 한국사회의 성문화 분석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을 왜곡되게 하고, 비대칭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성의 규범체계가 이중적이면서 남녀에게 달리 적용되는 문제와 성에서의 여성의 성적대상화 현상에 의한 것이다.

1) 이중적 성규범 체계

이중적 성규범체계란 우리사회에서 공식적인 성규범과 비공식적인 성규범체계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이것이 남녀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남성의 성은 허용적인 것이 되게 하고, 여성의 성은 순결과 정절에 엄매이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공식적인 성규범은 '합법적인 부부간의 성'을 규범적인 성이라고 보고 이러한 관계를 벗어나는 성관계를 금기시하고 있다. 이는 이성애 관계내의, 배타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서의 성만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이상적인 규범체계로 표면적으로는 남, 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비공식적 규범체계란 인간본성은 규범에만 맞출 수 없다고 보고 규범적인 성의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체계이다. 따라서 혼전, 혼외 관계, 비지속적이고, 일회적인 관계, 때로는 강제적인 성관계 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적 규범체계는 남성에게만 적용된다.

이 두 규범체계는 서로 모순적이지만 남녀의 본성이 상이하다는 신념을 유포시키고 여성을 good girl과 bad girl로 이분화 하면 정당화된다. 즉 남성의 성욕은 충동적이고 억제할 수 없으나 여성은 성적인 욕망이 없고 모성본능만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면 남성에게는 허용적인 이중적 성규범체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을 무성적인 good girl과 성을 유발하는 bad girl로 이분화 하면 대다수의 여성을 공식규범체계에 머물게 하면

서도, 일부의 여성을 남성의 비규범적 성적 대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성을 good girl과 bad girl로 이분화 하는 기준은 남성과 성관계의 유무이다. 남성들은 여성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숙한 여성과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구별하고 이러한 분리를 계속 유지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성들은 정숙한 여성에게는 결혼이라는 보상을 주면서 순결을 유지하게 하고 정숙하지 못한 여성은 결혼에서 배제시키는 처벌을 한다. 그 결과 대다수의 정숙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중적 성규범 체계를 따르게 하고, 규범의 모순성을 정숙하지 못한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

이러한 기제에 의해 남성들의 성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반면 여성들은 엄격하게 순결과 정절을 지킬 것을 강요하게 된다. 남성들은 이중적인 규범체계를 지속시키면서 자신들의 성적 자유를 구가하는 반면 여성들에게는 성적인 통제를 가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순결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지킬 것을 강조하는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게 된다.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순결은 정체성의 근원이자 한 인간으로서 갖는 가치의 근원이 된다고 믿도록

내면화시킨다. 그리고 이를 지키는 여성에게는 '한 남성과의 결혼'을 보장해주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몸을 망친 여자' 혹은 '손상된 상품'이라는 낙인을 찍어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 이로써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순결을 지키게 되고, 이것이 여성들에 대한 성통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2) 여성의 성적 대상화



여성의 성적대상화 역시 문제이다. 성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보여지지 않고 항상 주체가 아닌 객체, 사람이 아닌 사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간주되는 것을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 한다. 여성이 성적인 대상으로서 다루어지면서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됨에 의해 여성은 '동물', '몸동아리', '사물'로서 묘사된다. 여성의 성과 관련된 담론들에서 여성의 몸을 '기계', '물건'(예: 잘 익은 과일)으로 표현하는 것, 성과의 성관계를 '소유했다', '정복했다', '따먹었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 등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보여 주는 한 예가 된다. 이러한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여성을 하나의 사물이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여성을 착취하고, 잔인하게 다루고, 위협할 수 있고 모욕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여성을 비인간화하고, 가치절하시킴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하락하게 하고 남성에게 종속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남성이 원하는 모습으

로 외모 가꾸기, 남성이 원하는 태도나 품행을 유지하는 것에서 광고나 포르노그래피에서 성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 여성에 대한 매매춘, 성폭력, 성희롱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여성이 남성의 성적인 대상물이 되므로 인해 매매춘, 전화방 등에서의 고객은 언제나 남성이고 여성이 대상이 된다. 성폭력과 성희롱에서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 되는 것도 성적 대상화의 결과이다. 포르노에서 여성이 몸이 남성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기, 질, 벌어진 다리, 젖가슴 등으로 과편화되어 수단화되는 것은 남성의 성적인 욕구 만족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들이 몸을 낯선하게 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 성형수술을 하는 것, 화장이나 옷, 장신구 등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 남성이 원하는 여성적인 태도나 성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것도 대상화된 여성의 모습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매매춘의 다양화 및 만연, 성폭력과 성희롱의 급증, 전화방이나 포르노의 보급이 날로 성행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성적 대상화되는 여성, 이중규범 체계 속에서 순결에 매여 있는 여성의 모습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여성의 성을 남성에 의해 통제 당하게 하면서 성적으로 종속시키게 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하여 비인간화를 가속화시킨다.

4. 대안적인 성문화의 방향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왜곡되고 비대칭적인 성문화는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도 성에서 소외시킨다. 그렇다면 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한 성인식과 성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성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바람직한 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남녀가 동등한 주체가 되는 성', '남녀가 도구화되지 않고 친밀함을 동반하는 상호 인식적인 성'의 실현, '남녀가 동등하게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입장들이 있다. 여

기에서는 각각의 입장을 소개하고 장점과 약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는 남녀의 성 모두 단일 규범을 적용하는 성문화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남녀 모두가 동등하고 상호인식적인 성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 현 사회에서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내의 성관계만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결혼관계 내의 성은 배타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이므로 동등성과 친밀성이 보장된다고 전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제까지 많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단일 규범을 적용하는 사회였지만 실제로는 이중적인 규범체계가 지배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그리 실현성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남녀의 성 모두가 단일규범으로 적용된다고 해도 이미 사회구조적으로 수동적이고 도구화되는 성을 내면화한 여성의 성적 대상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결혼 관계 내의 성만이 상호인식적인 성이 된다는 전제를 수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성에 대한 금기와 규제를 철폐하는 성개방,

성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다. 이러한 입장은 결혼 내의 성만을
규범으로 보는 것은 가족과 결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
내의 생식을 중심으로 하는 성이 모
든 남녀에게 항상 상호인식적이고 선
택적인 성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따
라서 결혼 내의 성인 중심적이고 생
식중심의 성을 강요하는 규범을 벗어
나서 모두가 자신의 성적인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성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에 성해방이
시작되어 이제는 남녀의 성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금기가 상당히 완화된
상태이다. 결혼 전의 10대의 성관계는
남녀 모두에게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
며, 여성들도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
졌다는 사실이 더 이상 결혼에 장벽
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때로는 반문
화운동의 진영에서는 결혼 관계에 있
으면서도 일회적인 성을 즐기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구의 경험을 살펴보면 성
개방은 여성들에게 여성이 자신의 성
적인 욕망을 인식 가능하게 하고 순
결 이데올로기를 상당 정도 극복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다. 하지만 성해방은 결론적으로 남성
들만의 성해방이 되었고 여성들은 여
전히 남성에게 상처를 받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기존의 성적인 관행이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없이 여성과 남
성의 성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결국 많은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떠맡
는 독신모(single mother)가 되게 하
였으며,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는 결
과를 초래했다.

또한 성해방은 기존의 이성애적 관
계에 대한 도전이 없기 때문에 여성
은 여전히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남
는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과의 성관계를 위한 치장을 하거
나, 태도나 품행을 유지하고자 하며,
남성은 성적 욕망의 주체가 되고, 성
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지만 여성은 남
성의 성노예화되는 현상은 그대로 유
지된다는 문제가 있다.

세번째는 단일규범의 성문화나 성
개방적인 성문화는 모두 이성애적 관
계를 규범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여성들이 진정으
로 해방적인 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레즈비어니즘으로 나아가는 성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성애제도란 남성을 우선시
하는 제도로서 모든 여성은 남성에게
의해 규정되고 남성의 소유물이 되게
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거부할 것을
강조한다.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적인 삶을 공유해
야 한다는 것이다. 성적인 관계를 맺
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 여성들 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여성들간의 유
대를 강화하고 여성들 스스로가 실질
적이고 정치적인 지원을 주고받자고
강조한다.



레즈비어니즘은 이성애 제도에서
여성이 성적으로 순결을 강요당하는
것, 성적인 대상이 되는 것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해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이성애자로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살고 있는 여성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성들이 레즈
비언인가 혹은 이성애자인가와 무관
하게 '야생적인 여성' (wild woman)
이 되어야 한다는 Marilyn Frye의 주
장을 되새겨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야생적인 여성은 한 번도 성기
접촉을 하지 않은 '순결한 여성'에 대
립되는 개념이다. 야생적인 여성은 남
성과 이성애적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그
대로 유지하는 여성이다. 어떤 남성과
도 약혼, 결혼하지 않고, 남성으로부터

레즈비어니즘은 성적인 레즈비언이
될 것을 주장하지만, 설사 성적인 레
즈비언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치
적으로 레즈비언이 될 것을 강조한다.
즉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남성과 성
관계를 맺는 데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보다 여성들은 여성 스

터 구속당하지 않으며, 소유 당하지 않는 여성으로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유한 여성을 말한다.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 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결혼은 강력하게 저항하지만 여성과의 연대와 우정을 중시하는 여성을 말한다.

‘야생적인 여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치장과 꾸미기를 거부하는 여성, 남성이 규정한 여성성을 배격하는 여성, 경제적인 자립을 확보한 여성,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 남성과 관계를 맺어도 남성의 보호에 안주하지 않는 여성, 결혼이 특권이 아니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으면서 결혼제도에 유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여성으로 묘사된다.

여성들이 야생적인 여성이 되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성을 경험할 수 있는 성문화로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성이란 사회 문화적인 구성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대안적인 성문화의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이를 위해 어떠한 문화적 변혁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가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우선은 성과 관련된 가치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가치의 변화, 소유와 지배로서의 성이 아니라 상호 배려와 공동 책임으로서의 성으로의 가치 전환, 여성의 성적인 경험을 긍정할 수 있는 언어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확보, 가족형 성과 유지의 수단으로서의 결혼관 변화, 피임과 임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및 피임기구의 구입 용이하게 하는 것 등이 요청된다.



비안다, '이탈, 이별 후에 이별, 이별 뒤에 이별' (1991년 1월 10일)

히스토리

HERSTORY

지금 당신의 삶은 '그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버림받은 여성. 당신은 당신의 '죽음'에 만족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역사를 말하려 합니다.

시각저 버린 HERSTORY를 되찾고, 진정한 OURSTORY를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HERSTORY는 여학생위원회 산하 여성학 학회입니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여성학 학습을 원하는 모든 안 임 학우들을 환영합니다. 3기 성원 모집은 2학기 초에 있습니다. 광고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 단절의 벽을 넘어

1. 한국사회의 배일을 벗기자!!

— 감춰진 성문화, 성매매의 과잉포화~위험지수에 도달.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는 상품화된 성을 마음껏 즐기는 남자들의 모습이다. 최근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번창일로에 있는 룸살롱을 방문한 한 외국 남성은 방문소감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한국 남성들은 이런 곳에서 영원한 청소년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남성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아닐까....." 이러한 외국인

의 말은 한국사회는 성적으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거나, 보수적이라는 세인들의 편견을 뒤집어 버린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우리 사회의 성매매 조직은 대단히 놀랄 정도로 번창해 있다. 아시아의 악명 높은 사창가에 익숙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여성의 성을 매우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국가로 유명하다. 미아리의 텍사스 타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 방콕의 팻퐁 거리보다도 거대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청량리 588, 서울역 부근,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 세운상가 근처, 영등포역 주변을 위시해서 지방 도시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지역은

널리 퍼져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에서 유입된 전화방의 과도한 확장으로 성의 상품화는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여성 전화방 무료우대"라는 구호는 그 공간에서는 여성을 특별하게 배려한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만들기도 하나, 이의 실체는 여성의 성적인 결정권을 침해하고 Phone-Sex를 통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킨다는 점에서 가히 위협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향락문화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윤이 좋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전화방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어디 이것 뿐인가? 청계천이나 비디오방에서 쉽사리 구입할 수 있는 포르노는 남성의 시각으로 고정되어 있어 여성을 물상화시킴으로써 또 다시 여성을 소외시킨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월평균 1.1회의 상품화된 성행위, 서구사회의 40배에 가까운 수치는 한국사회를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과연 한국사회는 성적으로 지나치게 억압되어 있는가? 우리 모두 한번 반문해보자. 물론 이 질문이 대단히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쾌하게 긍정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완전긍정, 완전부정의 극단적인 이분법을 넘어서

- 과잉억압과 과잉표화,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 성극법 읽기 -

1) 남성의 성인식 - 사례를 중심으로

● '성'하면 행위가 생각난다. 포르노를 많이 봐서 그런지.....

여러가지가 동시에 떠오르는데, 성에 대해 건전하게 접근하지 못해서 그런지 음란서적, 사진 그런 게 생각난다. 특히 여자가...(20세:대학생)

● 집사람이 같은 직장에 있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남자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집사람의 기를 꺾기 위해서 일부러 술 마시고 고스톱 치면서 늦게 들어가고 기회가 있는 대로 며칠씩 집에도 안 들어갔다. (28세:직장인)

● 남자 심리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절제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여자가 있으면 만지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는 건가요?) 그건 너무 광범위하고, 쉽게 얘기해서 여직원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맘에 드는 여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직원한테는 조금 더 말을 잘 해주고 싶을 때도 있는 거고, 안 보이는 편견이 갈 수도 있고, 뭐 하다 못해 건드려 보고 싶기도 하고 그건 남자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충동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20대 후반:직장인)

● “ (미아리가고 여자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술 취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그리고 남자가 여자 얘기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 (37세:관리직)

● 매춘에 관한 이야기는 자랑하고 그런다. '하룻밤 몇 탕 뛰었느냐? 밤새도록 했다, 여자의 기교가 어떻더라, 여자가 교성을 지르고 안 놔주더라' 등..... 그런 얘기 들으면 '이 새끼 대단하다. 나는 왜 이상하게 그런 게 없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26세:사무직)

● 여자가 제일 처음 강간을 당하고 나면 그 남자를 못잊어 찾아 나선다고 들었다. 처음 강간했을 때의 느낌이 크다고 한다.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하다.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영화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여자도 즐기듯이 남자를 포옹하지 않는가? (25세:대학생)

● 고등학교 때는 노골적이었다. 자는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상상도 못할 진한 이야기도 많이 한다. 남자 10명이 여자 1명을 놓고 돌렸는데, 그 여학생이 더 없냐고 그러더라는 등..... 또 여자가 어떻게 소리는 지르고, 뒤로 했느니 그런 얘기까지 한다. 고2,3이 되면 더하다. 공부관계 이외에는 무조건 여자얘기라고 보면 된다. (22세:대학생)

2) 여성의 성인식

●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낙태의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자가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둔 채 연락이 되지 않아, 다니던 회사에 물어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자가 처제라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사실이 알려지면 결혼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사죄를 받아낼 방법, 이 남자를 혼내 줄 방법이 없을까요? (25세:사무직)

● 대학교 4학년 때, 그 남자를 만나 2년째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결혼할 사이로 공공연하게 알려져있고, 남자 자신이 친구들 앞에서 결혼할 것을 공언하고는 했습니다. 사귀기 7개월 되서 처음 낙태하고 그 뒤에도 한번 더 낙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겨울 의견충돌로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그후 두달 쯤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갑자기 와서 나갔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제 다시 잘해 보자는 화해의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후 그 사람 자취방에 전화를 했더니 애인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신변이 공개되지 않고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6세, 무직)

● 나는 결혼 전에는 남녀 성관계에 관해서 호기심과 기대가 너무나 컸었다. 사실 결혼도 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혼생활 내내 실망만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없었다. 나는 요즈음 남편이 출장가면 콘돔을 챙겨준다. 성에 관해서 너무 기대했기 문인지 실망 뿐이다.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남편에게 관대해진다. 결혼 전에는 여자들이 돈 받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여성도 같이 즐기고 그렇게 좋은데 오히려 돈을 받다니,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여자들은 별로 재미도 없는 것을 억지로 하니깐 남자들이 돈을 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해가 생긴다. (36세 : 전업주부)

● 콘돔이 떨어져도 내가 침구에다 미리 준비해 놓기 싫더라고요. 꼭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하고 싶다는 뜻을 보이는 것 같고, 난 바라지도 않는

1사례 1과 2의 여성은 모두 혼전 성관계를 가졌으나, 순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주체적인 연애 과정중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현 사회의 왜곡된 성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길들여져버린 모습 그 자체이다. 반면에 사례 1,2의 남성은 각각 특정한 여자와의 성관계로 가졌으나, 그들은 그 여자들을 변함없는 연애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이중적인 성규범을 잘 드러내준다.

데, 바라고 있다고 생각될까봐. (32세:전문직)

● 자꾸 피하고 거부했지..... 아예 용하지 않고 그러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더라구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신경질내고 툭툭 쏘고, 남자 말을 잘 따라줄 때에는 그냥 분위기가 부드럽고 그런데 여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니깐 골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안하대요. 용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다음날 화내고 그러면 피차 기분이 안 좋고 나도 부담스러우니까 할 수 없이 용해주죠. 그러니까 거절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 뜻에 용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임신하고 또 유산하고 그러지 뭐. (40세, 전업주부)



3. 왜 다를까?

- 성의 사회화 과정의 이중적 성격

우리는 앞의 사례를 통해서 성관계 중심의 성, 이중적 성규범, 여성의 이분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인식이 실제의 혼전 성경험과 부부간의 성, 그리고 혼외 성경험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남성들의 성은 공격적, 능동적, 진취적인 데 반해, 여성들의 성은 방어적, 수동적, 정서적임을 읽어낼 수 있었다. 또한 성에 관한 공식, 비공식적인 통로에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쉽게 근접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인식했다. 심지어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성 상품화'를 상징하는 매대춘 지역에 가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자랑으로 인식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행동이 혹은 동일한 사고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받는 것일까? 또한 이러한 성인식과 성문화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 유지되고 있는가?' 이제부터는 그 속에 담겨져있는 진실을 파헤쳐 보자.

청소년기 정보의 습득과정이 1차적인 성의 사회화 과정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 접하게 되는 접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나 경험들은 보다 실제적이고 2차적인 사회화라 하겠다. 성의 사회화는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에 포함된다. 그 중에서 특히 성(Sexuality)과 관련된 태도나 인식, 행동, 규범 등의 문화를 습득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의 사회화'로 지칭한다. 이러한 성의 사회화 과정은 크게는 공식적 성의 사회화 - 학교교육에서의 성관련 교육 - 와 비공식적인 성의 사회화 - 포르노, 친구의 경험담, 매매춘 경험, 소문, 군대에서의 경험 등 - 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이 중 공식적인 성의 사회화 기제를 통한 경험은 극도로 미약해 체계적, 과학적으로 성지식을 습득하고 규범을 읽힐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성을 폐쇄된 곳에 가두어 놓으려는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하여 공식적인 성의 사회화의 질적, 양적 미비는 남성들로 하여금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그들의 성적 관심을 충족시키게 한다. 이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자기 주변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몸이나, 생리, 성기의 구조 등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다. 즉, 그들에게 성은 성관계를 중심으로 개념화되고 여성은 주로 성적 대상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을 내포한 것으로, 또 하나의 왜곡, 성적인 편견과 성차별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심각하다. 이에 반해 여성은 성의 사회화 전과정에서 성에 관한 어떠한 정보에도 접근할 기회를 쉽게 획득하지 못한다. 설령 성에 대해 관심있는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성은 예외적인 인물로 치부되거나 성적으로 방종(?)한 여성으로 오해받기 일쑤이다. 이러한 오도된 성인식은 여성으로 하여금 순결 이데올로기나 처녀막과 같은 신화로부터 완전한 해방감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가장 많은 이들이 관심있어 하는 성인식과 성문화는 이렇듯 이중적인 - 정

력이 강한 남자와 순결한 여자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 성규범을 현 사회에 고착화시켰다. 또한 이중적인 성규범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한국사회 성문화의 비대칭성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서구의 40배에 가까운 성매매 행위'라는 기록적인 수치와 '처녀막 재생수술의 증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픈 기억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이 이중적인 성규범과 한국사회 성문화의 비대칭성을 꿰뚫어 볼 눈이 요구된다. 더불어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히 얘기되어지던 성을 공개적인 담론으로 상승시키려는 의지 또한 요구된다. 이제, 성에 대해 떳떳히 얘기하자.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성지식이나, 여성에 대한 성적 편견 또한 과감히 없애버리자. 그럴 때만이 성담론의 공개화를 넘어선 평등한 성담론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사회의 왜곡된 성담론의 원인을 여성 개개인에 게만 전가시키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에 고착화된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연관시킬 수 있는 상상력으로 '통념'으로부터의 탈출, 주류의 전복을 시도하자.

● 참고도서

- 새로쓰는 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제 8호)
- 섹스, 포르노, 에로티시즘 :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현실문화연구)
- 지배문화, 남성문화 (또 하나의 문화)
- 여성과 한국사회
- 남성의 성인식 논문 (여성학논집 제 11권)



이제, 더 이상 성폭력은 없다???

1. 들어가며

작년 한해 동안 고대에서만 수차례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고대 내에는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고대 내의 성폭력 사건을 통해 우선은 성폭력으로부터 대학이라는 공간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과 대학인들의 성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학내에서 진행된 성폭력에 대한 논의는 사회 일반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가십거리 정도로 다루어졌을 뿐, 성폭력의 본질과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성폭력의 실제와는 거리가 먼 편견들은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피해 여성들의 고통이나 후유증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한 몫하고 있다. 또한 이런 잘못된 통념들은 법과 제도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성폭력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성폭력의 본질을 은폐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임을 주지할 때, 이러한 편견들을 깨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2. 성폭력의 실제

경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1975년 2774건이던 성폭력 범죄는 1980년 이래 매년 5000여 건이상 보고되고 있으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7년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 발생 빈도 세계 제 2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범죄 백서'에 의하면 성폭력 신고율은 실제 발생 건수의 2.2%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유추해 보면, 한해 성폭력 발생 건수는 25만건, 하루 685건, 한 시간 29건, 2분마다 1건의 성폭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그 어떤 개선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심각한 수위에 오른 성폭력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미비와 더불어 더욱 심각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왜곡된 편견들이다. 성폭력을 다루는 언론이나 대중매체는 선정성을 부각시키거나 형사상의 문제로 극단화된 경우만을 전달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유포시키거나 조장하고 있다. 그 예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음침한 골목 등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배에 의해 자행되는 정형화된 형태가 성폭력 유형의 전부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감추어지고 왜곡되어 전달되는 성폭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성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성폭력, 조직 사회에서 통제 수단으로 존재하는 성폭력, 개인적 차원의 성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이를테면, 흔히 성폭력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강도에 의한 성폭력 뿐만 아니라 가족내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 그리고 언어에 의한 성폭력(언어 회롱, 음담패설 등)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인 경우가 더

2. 석순 9집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참조

많다.

셋째, 피해 여성의 연령은 만 3개월부터 70여세까지 다양하다. 특히 전체 성폭력 사건 중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성폭력이 35%를 차지하며, 이중 33%가 친족에 의해 일어난다.

넷째, 가해자의 연령도 10대에서 70대 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직업이나 계층 또한 다양하다.

다섯째, 가해 방식도 물리적 강제 이외의 다양한 방식이 이용된다.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엔 위협이나 폭행보다는 애정 위장, 금품 유인, 속임수 등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물리적 강제(40.9%)보다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강제(56.1%)인 경우가 더 많다.

3. 성폭력을 둘러싼 잘못된 통념 비판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 남성의 개인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이고 문화적이며 심리적인 기반 하에서 파생되고 유지되는 현상이다. 그러면 성폭력을 둘러싼 잘못된 통념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그 편견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함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a.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 성폭력이란 강간뿐 아니라, 가벼운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폭력, 언어에 의한 성폭력, 성기노출, 어린이 성폭력, 집단에 의한 성폭력, 가족내 성폭력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 모두가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b.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 강간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성이 공격 무기가 되어 피해자의 성을 침해한 폭력 행위일 따름이다. 이러한 통념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순결 이데올로기를 그 기반으로 하며, 이로 인해 여성은 사건을 신고하지 못한 채, 순결 상실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나 수치감, 절망감에 빠지는 등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강간을 당하는 것은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이다.

c.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³⁾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이다.

- 성폭력 상담소에서 조사한 사례에 의하면 70%이상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충동적이기보다는 치밀하게 준비된 상황하에서 일어난다. 가해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을 하게 되는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한 것 등이다. 그리고 성폭력이 쉽게 이러한 수단이 되는 것은 남성의 성충동은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통념과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여성비하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폭력은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d. 성폭력은 젊은 여자들에게만 일어난다.

3. 흔히 성은 본능적인 행위라고 말한다. 성적 욕구 자체는 물론 본능이지만 그것이 남성의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는 성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주장될 수는 없다. 성에도 사회적 규범이 있으며, 그 규범을 따를 수 있는, 즉 성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은 남녀 모두에게 있다.

- 실제로 성폭력의 피해자 연령 대는 최저 생후 6개월부터 최고 70세에 이른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96년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인 피해 상담은 42.1%, 미성년자 57.3%이다. 즉 피해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어린이부터 중고생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점차 늘어가는 상황이며, 그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피해자의 33.8%, 중고생은 25.5%이다.

e. 여자들은 '온근히' 성폭력을 당하기를 '바란다'.

- 남성들의 성폭력심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흔히 여성들의 '유혹설'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범죄 책임을 피해 여성에게 돌려버리고 이를 정당화하려 한다. 이는 가해 남성의 이성(理性)은 존재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성폭력이 사전에 계획되어 일어난다는 사실과도 배치된다. 성폭력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생각할 때, 그러한 피해를 의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상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 비하하는 인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f. 여성들의 '아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 5에서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다. 실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젊고 예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어서 피해를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어린이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30%가 넘으며, 성폭력 발생 시기가 여름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 따라서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 여성의 옷차림이나 언행에 전가시킴으로써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비난의 화살을 피해 여성에게 돌리는 잘못된 논리이다. 이런 맥락에서 작년 여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노출단속법'이라는 가해자 중심적이고 반여성적인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g.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다.

-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업이나 계층적 특수성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성실한 직업인으로 평가받고 있거나 명망 있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 즉 이들은 정신이상자라기 보다는 여성에 대해 심한 편견을 가진 왜곡된 성인식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h. 대부분의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 실제로 아는 사람(친인척, 이웃, 데이트 상대, 선후배, 동료, 직장상사, 교사나 강사 등)에 의한 성폭력 발생율은 70% 이상을 차지한다. 성폭력 상담소의 96년 상담 현황에 의하면 이 중 친인척이 26.7%, 동네 사람 21.5%, 직장내 17.4%, 데이트 상대 10.9%, 교사나 강사 9.8%, 선후배나 동급생 7.4%, 기타 12.3%이다. 기타의 경우에는 성직자, 의료인, 아파트 관리인, 통학 버스 기사, 친구의 애인이나 애인의 친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일시적인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i.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 실제 성폭력 사건 신고율이 전체 사건의 2%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폭력의 가해자가 특정 유형에 국한되어 있지 않듯이, 피해자 또한 나이, 종교, 직업, 교육 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고 또한 피해 여성 개인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립화는 성폭력 근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j.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⁴⁾은 불가능하다.

- 가해자는 많은 경우 언어를 통해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다. 성폭력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저항만을 강조하는 것은 강간을 성행위로 보는 통념을 반영하는 동시에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순결 이데올로기의 발로로 부당한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순결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여성의 생존권-인권-을 무시하는 성차별적인 것이다.

k.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 이는 사실상 성폭력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으며, 여성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암묵적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념은 여성의 자율권을 제약하고 행동 반경을 좁힐 것을 요구하는 남성중심적인 논리이다. 한 여성학자가 농담처럼 던진 "여성들이 밤거리를 다니지 않게 아니라, 남성들을 못 다니게 해야한다."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닌 것이다. 사회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활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나머지

몇 가지로 분류해 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은 우리 사회 성문화의 특성인 성의 '남성중심성'과 '남성 성기 중심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남성에

4. 성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 중 강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성폭력의 유형을 성기 결합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고이지만, 이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여성(피해자임에도)에게 강요되는 순결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이므로 편의상 특정 유형을 상정하는 것이다.

게는 성욕을 과시하는 것이 남성다움의 상징 인양 부추기고, 여성에게는 순결이 최고의 가치 인양 강요하는 이중적 성규범이 그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성폭력의 본질에 입각한 인식의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성의 사회화 과정과 그 내용도 남성과 여성이기에 전에 올바른 인격을 갖춘 주체를 세워 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성교육의 과정이 재물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왜곡된 성지식이 난무하는 현실은 성에 대해 평등한 관점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지식의 남녀간의 비대칭화를 초래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평등한 성교육의 필요성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절실하다고 하겠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전반적으로 고착화된 성차별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있다. 성폭력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성적인 모멸감을 안겨 준은 물론, 그 후유증도 심각하여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성폭력은 남녀간의 권력 관계의 발로로써 권력자(혹은 계층)가 피권력자(혹은 계층)에게 행해짐으로써 당당한 처벌요구조차 어렵게 하는 고질적인 여성억압의 기제이다. 아울러 노동 현장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활용- 직장내 성폭력 -되기도 함으로써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을 침해 하는 기제가 된다.



모르는 게 약이냐?!

고등학교 때 우리는 생물시간이나 대하여 얼마나 제대로 아는가' 라는 특활 시간에 가끔씩 '성교육 비디오'라는 것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청소년기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이므로 성과 관련된 행위는 무조건 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량한 학생으로 그려지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이나 야자 틈틈이 우리의 손을 거쳐갔던(?) 수많은 잡지와 사진들, 그리고 친구들과 은밀히 (?) 이야기하던 - "야... 그래서 그 다음은?", "야, 너무 야한 이야기다~" - 성에 대한 것들은 성교육 비디오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대학에 들어온 지금,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전달된 성지식을 제외하면 당신은 성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성에 대한 무지와 수많은 오해들은 단순히 무식하다는 사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올바른 주체로 서기 위한 사회적 역할까지도 가로막는 통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한 만큼 '성에

1. 잘못 알고있는 성지식

당신의 성지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친구들과 사이에서 들려오던 음담패설 류의 이야기. 아니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책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의 형태로 전달된 성지식들이 우리가 아는 성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잘못 전달되어 건강한 성을 해치는 지식들을 찾아 올바르게 읽어봅시다.

1) 처녀막

처녀막은 질구를 막고 있는 막이 아니라 조금 안쪽에서 질구를 덮고 있는 점막 조직이다. 손가락이 통과할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어서 월경이 나올 수 있으며 성 경험이 없는 사람 일지라도 삽입식 생리대 (탐폰)를 넣을 수 있다. 처녀막의 형태나 크기,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경우도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첫 번째 성관계에 의해 처녀막이 파열되어 혈흔이 생기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40-50%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혈흔이라고 해서 많은 하혈이나 진한 피를 의미하지 않는다. 약간 붉은 빛을 띄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발견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코미디 프로나 드라마 등에서는 하나의 우스갯거리로 첫날밤에 밖에서 담배를 피며 한숨쉬는 남자의 모습을 많이 그립니다. 위의 이야기처럼 우리 사회에서 순결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포화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척도중의 하나가 바로 '처녀막'의 존재 여부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순결 이데올로기 안에 가두어 두는 도덕적인 폭력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여성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정도를 여실히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

이 처녀막은 처음에 있었다 하더라도 장난을 치다가 또는 운동을 하다가 없어질 수 있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막의 크기가 아주 작아 거의 눈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때로는 처녀막이 너무 두꺼워 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처녀막의 신축성도 개인차가 심해 성교나 출산 후에 다시 원상 복귀되는

2) 음핵 (clitoris)

매스터즈와 존슨(미국의 성 과학자. Kinsey와 함께 성지식부분의 대표격으로 꼽히고 있다.)은 음핵의 기능을 성적 감각의 전달기 내지 유도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음핵은 음경귀두와 같은 신경 분포를 가지며

감각 신경 섬유는 말단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여성은 음핵의 자극으로 매우 높은 쾌감을 느낀다. 음핵은 길이가 0.5에서 1.5cm밖에 안되는 작은 구조이지만, 이 작은 부분에 남성의 페니스와 같은 수의 말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여성의 주요 성감대로, 이곳의 자극만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여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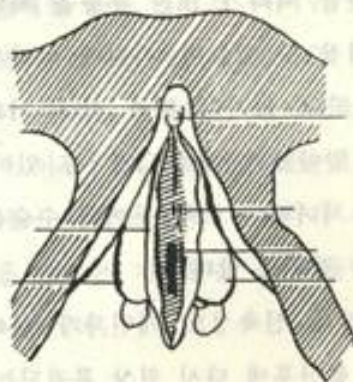
클리토리스(clitoris)란 말은 히랍어로 "숨어 있는 것"이라는 뜻이며 우

적으로 음핵을 자극하는 일은 없으나, 소음순에 압력이 주어짐으로 해서 다소 전후로 움직이며, 이것에 회전운동 등의 복합된 운동을 가하면 소음순에 의한 표피의 움직임이 간접적으로 음핵을 자극하게 된다. 즉 단순한 성기 결합만으로는 음핵의 직접적인 자극은 힘들게 된다. 우리가 성교 중심적 사고에서 질을 중요한 성자극 기관으로 보는 것과 달리 질은 매우 민감한 음핵과는 대조적이다.

과연 여성들이 성적 만족을 느끼는 방식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기 결합 형태로 가능한 것일까요? 실제로 기혼 여성들 중 성관계에서 한 번도 성적 만족을 느끼지 못한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기 결합이 남성 중심적인 성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리말로는 음핵이라고도 한다. 적절한 자극으로 성적 흥분이 더욱 높아지면 음핵은 점차 안으로 숨어 버린다. 그러므로 일단 성기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체위가 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격렬한 성관계를 하더라도 깊숙이 숨어 버린 음핵은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일상적인 성교에서는 음경의 전진 운동이 직접

● 그림 1 - 여성 성기의 구조



와 대조적으로 음핵의 자극은 항상 오르가즘을 일으킨다. 이는 여성의 자위행위가 거의 음핵의 자극에 의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통설과 달리 질 속에 물건을 삽입하여 오르가즘을 얻을 수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 또한 성기 결합의 진행 과정에서조차 여성의 오르가즘의 열쇠가 되는 것은 음핵의 자극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자들의 결론이다.

든, 작든 간에 일단 성기 결합이 시작되고 나면 질에서 받는 감각은 동일하다. 즉 성기 결합시 질벽이 쪼여져 음경의 크기에 따른 여성의 지각 조건은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남성이 느끼는 성감 역시 자신의 음경의 크기와 무관하다. 음경은 음부 신경을 통해서 척수의 발기 중추의 지배를 받는데, 이완시에는 대소가 다양한 음경도 일단 발기되면, 그 차이가 없어져

흔히 보여주는 변강쇠류의 예로(?) 영화나 음담패설,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비유 등에서 마치 남성의 정력은 페니스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성을 매개로 한 다양한 육체적 관계는 남근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러한 사회적 통념들은 여성에게는 성적 만족을 수동적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반면 남성에게는 정력제일주의라는 형태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조루에 대한 강박관념 또한 남근 중심적인 사회의 통념이 빚어낸 산물입니다.

3) 음경(penis)

남성 중에는 자기의 음경의 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으나 여성의 질은 어떤 크기의 음경에도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질의 내부는 매우 둔감하기 때문에 음경이 크

서 평균 12 - 17.8cm가 된다고 한다.

4) 조루 (prospemia)

조루는 성교에 앞서 또는 성교를 시작하자마자 조기에 사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사정은 정신적 흥분과 육체적 자극의 상승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조루증은 이중 육체적 통제 부분이 약간 미숙한 상황에서 발생된다. 대개 시일이 지나면 괜찮아지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심각한 성 질환으로 사고하고 있어서 성적 신경 쇠약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조루증이란 단지 사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일 뿐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위행위는 여성에게 순결을 더럽히는 불결한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반면 남성은 이러한 편견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지만 자위행위는 정상적인 성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결혼 이후에는 금기시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자위 행위는 인성을 파괴시키며 정신적 성장 또한 가로막는 것으로, 마치 악물 중독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위 행위는 본래적으로 나쁜 것일까요?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남성들의 자위행위가 상

5) 자위 행위(masturbation)

자위행위는 남성은 주로 페니스의 귀

두 부분의 마찰을 통하여, 여성은 음핵이나 질주위를 자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자위행위는 자신의 성감을 발견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동시에 자신이 스스로 몸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인 성관계에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자위행위에서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보고에 의하면 자위행위를 하는 남성은 약 95%, 여성은 약 80% 정도라고 한다. 이렇듯 자위행위

는 사회적인 통념과는 달리 건강한 성을 이루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위행위가 금기시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남성들의 자위행위가 상

화되어진 여성의 사진 등을 보거나 이를 상상하는 것으로 행해지는 것은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또다시 여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섹스 쇼에서 여성 자위 기구의 유통만이 불법으로 취급되는 사실에서도 우리 사회가 성에 있어서 특히 여성에게 얼마나 억압적인지를 볼 수 있다.

2.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알 기본적인 성 지식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생리를 한다는 것은 감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리 기간 중의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아무 이유 없이 이상해지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생리는 감추거나 숨겨야 할 것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이 지닌 당연한 출산 능력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좋다.

1) 월경 주기 측정법

원론적으로 월경 주기는 28일로 5일간 지속되며 30ml가량의 출혈이 있

다고 하지만, 여러 과학적인 조사 결과 월경 주기가 정상적인 여성들 가운데도 편차가 상당히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정상적'이라고 일컬어지는 28주기를 갖고 있는 여성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며 15일에서 50일 정도의 주기라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월경 기간도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8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생리 기간 통증이나 심리적 불안감 등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직장 일을 하루 쉬어야 할만큼 큰 고통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많다. 만약 특별히 생리 기간이 고통스럽거나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차트를 작성하여 의사에게 보이며 상담하는 것

월경 주기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여성에게 몸의 이상을 알리는 징후이므로 이러한 차트를 작성하면 몸의 이상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

● 월경 분석표

생리 기간 특히 상태가 나쁜 날에는 표시를 하라. 월경이 시작되는 첫날(제1일)부터 표시하기 시작하여 주기의 마지막 날까지 한 줄에 표시하고, 다음 줄 첫 칸부터 다시 시작한다.

● 월경

주기표

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I																									
II																									
III																									

표시 할 내용

X=생리 기간 P=통증 !=성교 I=불안감 O=우방 동통
T=피로 B=부종 W=체중 증가 D=우울증
S=속옷에 얼룩만 질 정도로 소량의 출혈

2) 피임법

a. 자연 피임법

● 기초체온법(basalbody

temperature : BBT)

이는 월경 주기 이용법의 일종이며 매일 아침에 체온을 조사해서 저온에서 고온기로 옮기는 전후 7일간

경에서 배란이 있기까지는 비교적 체온이 낮고, 배란이 있는 때부터 다음 월경까지의 기간은 비교적 체온이 높다. 이 때의 체온 차이는 섭씨 약 4부 내지 5부 정도이므로 보통의 체온계로는 판별하기가 어렵고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특수한 체온계를 이용하도록 한다.

기초체온법은 매일 아침 체온을 측

성교육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피임 방법일 것입니다. 피임법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중적 성규범을 뛰어넘어 성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특히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근거로 피임 또한 여성에게만 맡기는 잘못된 통념들은 성관계와 관련한 모든 일을 여성에게만 돌리고 있는 또다른 억압입니다. 이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즐기는 성, 그리고 함께 책임지는 피임에 대해 한발 앞서 나가 생각해 봅시다.

을 피하는 방법이다. '기초 체온'은 기상 직후에 체온계를 혀 밑에 넣고 누운 채로 측정한다. 이렇게 기초 체온을 매일 재어서 그것을 표에 기입하여 하나의 곡선으로 표시하면, 저온기에서 고온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한층 더 저온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하루 이를 있다. 이 시기가 배란기이며 월

정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방법이다. 따라서 여성은 기초 체온과 함께 배란 전후의 특유한 몸의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배란이 있기 2~3일 전부터 여성들은 거의 예외가 없이 습기 있는 분비물이 많아지게 된다. 그 밖에도 배란이 있을 때쯤이면 하복부가 묘하게 아픈 듯한 경우가 있다. 그

러므로 체온을 재면서 이러한 몸의 변화를 아울러 주의해 보면 배란에 의한 체온 상승인지 아닌지를 좀더 명확히 알 수 있다.

● 경부점액법(점액 관찰법)

이는 배란 주기에 따라 자궁 경부에서 분비되는 점액의 탁도와 점도에 의하여 배란일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모든 여성은 월경이 끝난 후부터 며칠 동안은 점액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질 내부가 비교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배란 수일 전부터 점액이 분비되기 시작한다. 초기의 점액은 흰색을 띤 끈끈한 점착성의 물질이나 점차 색깔이 옅어지다가 배란 24시간 전에는 달걀 흰자와 같이 거의 투명하고 미끈거리는 점액으로 변한다. 그리고 배란 후에는 점액이 다시 흰색으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점액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액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날부터 투명한 점액이 분비되는 날 다음의 3일간 정도를 피하면 피임을 할 수 있다.

● 오기노식 피임법 (월경 주기 이용법)

이 방법은 임신할 수 있는 시기, 즉 가임기를 산출하여 응용하는 방법이다. 오기노식 피임법은 바로 수정 가능한 시기를 사전에 계산한 후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 시기의 전후 며칠씩 여유를 두어 성교를 조절함으로써 임신 시기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월경이 시작되는 전날부터 거꾸로 세어서 12~16일 사이에 배란이 되는데, 정자가 자궁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3일간을 더하여 거꾸로 세어 12~19일 사이의 8일간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성관계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초 체온과 점액 관찰을 정확히 하지 않는 한 실패하기 쉽다. 배란 주기가 규칙적이거나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은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다음 월경 2주전이 배란일이라고 하나 개인차가 크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b. 기구를 이용한 피임법

● 콘돔(condom)

남성들이 사용하는 피임법 중 제일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콘돔이다. 시판되는 콘돔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끝에 돌출 부분이 없는 등근 형이고 다른 하나는 끝부분에 사정액을 모을 수 있도록 작은 돌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모양의 것을 사용할 경우 콘돔 끝부분의 약 1cm 정도는 정액을 모을 수 있도록 빈 공간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콘돔은 페니스가 발기되었을 때 공기를 뱉 다음 완전히 페니스 위로 덮어 씌워야 하며

이때 손톱이나 반지 등에 의하여 콘돔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정 후에는 콘돔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고 정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질로부터 빼어 낸다. 만일 콘돔이 찢어진 것이 발견되면 즉각 살정제(spermicide) 거품이나 젤리를 사용하여 질내에 남아 있는 정자를 죽이거나 혹은 모닝 애프터 pill(morning after pill)이라는 다량의 에스트로젠을 함유하는 알약을 약 5일간 계속 복용하여 임신을 막을 수 있다.

● 그림 2 - 콘돔 사용



-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콘돔은 용경이 발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기되면 바로 착용한다.
- ③ 이때 콘돔이 손톱이나 반지 때문에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엄지와 검지로 콘돔의 끝부분을 잡고
- ⑤ 다른 손으로는 용경의 두부에 콘돔을 씌우고 끝까지 펼친다.
- ⑥ 사정 후에는 용경이 발기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전에 여성의 질내에서 용경을 빼내는데 정액이 콘돔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콘돔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의사의 특별한 지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콘돔의 사용은 매우 믿을 만한 피임법(90%의 피임 효과)이고 또한 신체적인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간편한 사용법으로 인해 널리 권장되고 있다. 또한 성감을 낮춘다는 사회적인 통설은 사실과 무관하다.

● 페미돔 - 여성용 콘돔

페미돔은 '여성의(Feminine) 콘돔(Condom)'이란 의미이다. 기존의 남성용 콘돔보다 훨씬 크고 양 끝머리에 둥근 플라스틱 링이 달린 모양을 하고 있다. 최근에 시판되기 시작하여 보급률이 낮고, 아직까지 정확한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착용시 여성에게 많은 불편함을 준다.

c. 영구 피임법

● 정관 수술

정관 수술은 남성 생식기가 몸밖에

나와 있으므로 남성의 정관을 직접 손으로 잡아낼 수 있다. 피부를 약간 찢고 정관을 찾아 손으로 묶은 후 절단시키거나 전기소작기로 지지는 방법이다. 여성의 영구 피임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술의 난이도가 낮고 후유증이 없어 더욱 합리적이다.

● 복강경 수술

여성이 하는 복강경 수술은 복잡하고 힘든 수술로 배꼽 옆의 살을 1cm 가량 찢어서 그곳에 복강경을 넣어 보며 시술하는 방법이다. 이 시술 방법은 우선 복강을 열어 난관을 찾아 들어 올린 후 그 난관을 조작 기구를 통해 고리를 씌우든지 전기 소작기로 지져 난관을 막히게 하는 것이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수술이므로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d.. 성교후 피임법

다음은 내복약을 이용한 성교후의 피임법이다.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경구용 피임약의 형식이라서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성폭력의 피해를 입어 임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첫째, Estrogen제제로서 DES (Diethylstilbesterol)를 25mg씩 4일 이상 복용한다. 이 약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아를 임신하였을 경우 태어난 여아에게서 질암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되어 권장 할바는 아니다.

둘째, 경구용 피임약 (Estrogen 과 Progesteron 복합 제제). 경구용 피임약 (oral pill; 한 알에 EE2 (ethinyl estradiol) 50mg과 Levonorgestrel 0.5mg을 함유) 을 성교후 72시간 내

구토, 많은 양의 하혈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셋째, RU 486(매우 유효하다고는 하나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피임법

이 부분은 흔히 사용되는 피임법이지만 실패율이 높고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방법들을 모은 것이다. 아래의 피임법은

생각하기.....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의 약 3천만명의 여성들(WTO집계 7천 5백만)이 '여성 할례'라는 의식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여성 할례라는 것은 3세에서 8세 사이의 여아들에게 행해지는 의식으로 여성 성기에 훼손을 가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클리토리스 절단이다. 이 시술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비의학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며 시술중 상당수의 여성이 사망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합병증으로 평생을 고통받는다. 이는 남성의 포경 수술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쉽게 비유하자면 페니스 절단에 가까운 일이다. 이러한 성기 훼손은 가부장제의 성기능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성을 단순히 남성을 위한 도구적 의미나 출산의 수단으로만 이용함을 뜻한다.

에 두 알 복용하고, 복용후 12시간 후에 다시 두 알 복용하는 방식이다.

셋째, Premarin(estrogen 제제)을 고용량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오심,

그 위험성을 생각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 성교중단법(coitus interruptus)

남성이 사정 직전에 페니스를 밖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피임법이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교시 사정 전의 흥분에 의하여 쿠퍼씨분비물이라는 윤활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100만 마리 이상의 정자가 방출되며 이로 인하여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자궁내 삽입 장치

(IUD : intrauterine device)

경구 피임약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이 자궁내 피임 장치이며 흔히 루프(loop)라고도 불린다.

이 자궁내 피임 장치는 구리와 플라스틱의 합성이나 플라스틱으로만 이루어지며 주로 기혼 여성들이 많이 사용한다. 정확히 이 장치가 어떻게 하여 임신을 방지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나팔관이나 자궁근육의 균형이 깨져서 난자나 정자가 나팔관 내부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궁 내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이 장치가 자궁 내에서 이탈되지 않는 한 98%의 피임율을 보장하나

여성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빠져 나올 수도 있고 불규칙적인 하혈이나 하복부 통증 등의 부작용이 계속 보고되는 등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이 장치의 사용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질 살정제

하얀 도넛 모양으로 성교 전에 질 내에 이 살정제를 깊이 넣어 두면 질 내의 분비물에 의하여 서서히 거품을 내어 자궁 경관 입구를 작은 거품의 벽으로 막는다. 이러한 약품의 작용으로 정자의 운동을 중단시켜 수정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살정제는 질과 자궁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 염증의 우려가 많은 만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그림 3 - IUD의 위치



● 먹는 피임약 (필)

가장 흔히 사용되는 피임법으로 여성 호르몬을 혼합해서 만든 것으로 인공 임신 상태를 만들어 배란을 막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나 매일 한 알씩 쉬지 않고 먹어야 하며, 거르게 될 경우 12시간 후에 피임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먹는 피임약은 오래 복용할 경우 강도가 더 높은 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 방법은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해서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질 분비물이 증가하며, 피부가 검게 잘 타고 현기증, 두통, 우울증이 나타나거나 머리털이 빠지기도 한다. 또한 피임약을 4년이상 사용할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2배 이상으로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은 3-5배가 높다고 한다. 이러한 많은 부작용을 볼 때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겠다.

● 참고 도서

- 성의 과학, 아카데미 출판사
- 나눔터, 한국 성폭력 상담소
- 구성애의 성교육
-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교조 여성국
- 여성 망명정부에 대한 공상
- sex book, 박명률 출판사
- 7가지 남성 콤플렉스



여성학

추천도서

여위 추천도서

1.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다양한 여성학적 주제 중서 아마도 가장 많은 이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는 성일 것이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말해지는 '성'에 관한 이야기는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리라. 그러나, 이러한 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담론과 현상들은 사뭇 모순을 띠고 있다.

새로 쓰는 성 이야기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이 책은 성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억압과 소외, 그리고 해체현상을 다루고 있다. < 논설과 현장연구 >에서는 성에 대해 무지했던 봉건시대에서부터 남녀 모두가 타자화되고 소외되는 탈근대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금기시된 성이 침실에서 성적 쾌락으로 자리 잡은 이후, 또 다시 익명성 하에 순간적 쾌락으로 과편화되는 흐름, 고도로 발달하는 출산력 통제기술, 성폭력을 조장하는 상업문화, 성적 회롱이 자행되는 일상성 속에서 우리는 닫힌 마음과 닫힌 육체를 재생산하는 사회를 여실히 보게 된다. 다음으로 < 육아기>는 다소 진부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으나, 육아 속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과 자녀의 성교육에 대한 체험수기가 담겨져 있다. < 적응과 성장 >에서는 보다 생생하게 이성간의 관계를 폐쇄적인 것으로 물고가는 성을, 그리고 < 쿵트와 촌극 > 등에서는 그 소외된 성의 찌꺼기가 군대에서, 사무실에서, 캠퍼스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들의 성 이야기는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은폐된 곳에서 회자되던, 특정 성의 전유물로만 애기되어지던 성에 대한 모든 담론을 이제는 지상으로 몰아내자!! 그럴 때만이 '과잉억압과 과잉포화'로 규정되는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문화가 평등하고 건전한 성문화로 전화될 것이다.

2. 이것이 성회롱이다.

조엘 프리드만 저

최근 몇 년 사이 성폭력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9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양적확산과 여성계의 활약이 맞물리면서, 사회 일반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점차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지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단지 '성기삽입을 지칭하는 강간'만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할 뿐.....

< 이것이 성회롱이다. >는 이러한 대부분의 이들의 성인식에 경

종을 올리는 책이다. 이는 성회롱이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성차별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에 의거한다면,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권력관계를 매개로 발생하는 모든 성적인 폭력'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다. 이 책에서 조엘 프리드만은 직장내 성폭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 나간다. 그녀는 직장 내에서 여성(혹은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적인 폭력을 그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 보복형 성회롱과 환경형 성회롱으로 구분지어 설명한다. 보복형 성회롱이란, 성회롱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로서, 바라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접근이 이루어지고, 그 수용여부가 고용의 조건이거나 혹은 고용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보복형의 사건들은 비교적 그 윤곽이 분명하다. 즉, 피고용인이 성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승진이나 업무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최근 성폭력 사건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환경형 성회롱

으로, 이는 성적인 접근에 의한 불쾌함, 성적인 요구, 성적인 언행 등으로 인하여 직장 분위기가 거슬려서 적대적 근무환경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해자의 성적인 접근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와 같이 이 책은 성희롱의 개념과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의 현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성희롱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임에는 틀림없다.

3. 여성운동과 정치이론

- 이승희 저, 녹두

‘여성문제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다. 즉, 여성문제는 생물학적인 성으로서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억압과 차별 그 자체이다. 그러나, ‘여성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어떤 관점에서 여성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여성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여성문제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이승희씨는 여성문제를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모순에 기반해 해석하며, 사회주의와 여성해방과의 관계, 그리고 기존에 여성학계에서 논의되었던 가부장적 자본주의 국가론에 대해 언급한다. 다음으로 제 2부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여성문제가 계급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3부에서는 가장 많은 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한국의 여성운동사의 흐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 여성운동과 정치이론 >은 여성억압의 기원에 따른 각각의 여성운동의 흐름과 해방 이후 한국의 여성운동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더욱이 한국의 여성운동이 중산층 위주로 서술되었던 기존의

풍토에 반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석을 통한 기층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여성들의 진보적 정치세력화라는 그녀의 주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4.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 장미경 편저, 문원

이 책은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어 온 세계 여성운동의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여성운동이 처해있는 위치가 어디쯤 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현단계에서 봉착하고 있는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로 엮여져 있다.

이러한 시도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그 한계를 노정하고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우리 앞에 놓인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단순히 추상적인 논의나 이론만으로는 현실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는 지각 하에서 외국의 현실적 경험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론적 타당

성과 그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천적 과제는 현실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 진위나 진리적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론적 논의보다도 현실적 경험이 우선한다는 전제 하에서 엮은 것이다.

<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에서는 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유럽의 제2기 여성운동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II부에 소개한 글의 필자들이 대부분 여성운동이 안고 있는 성과 계급의 이슈들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60년대 이후부터 비교적 최근의 논쟁 및 고민의 과정까지 망라하고 있어, 이는 실제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 여성들의 실상이나 여성운동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던 독자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다.

먼저 제 1부에서는 여성운동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서술한다. 여기서 저자는 여성운동의 흐름을 자유주의 부르조아 여성과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1920년대까지의 운동과 세계적

공황과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후 신좌파와 함께 개시된 1960년대 이후의 제 2기 여성운동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중 장미경씨는 제 2기 여성운동을 주되게 다루는데, 그녀는 다양한 2기 흐름 중에서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론'을 통렬히 공박한다. 다음으로 제 2부에서는 196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여성해방적 흐름을 진단한다. 여기서 소개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지에서 여성운동사는 한국의 여성현실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부여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최근 세계 각국의 현실을 담아냄과 더불어 90년대 후반 한국 여성운동의 발전적인 전망을 찾고자 노력한다.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의 신조류를 소개했다는 단순한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자본주의 체제가 배태하는 계급모순과 여성억압을 끊임없이 연관지어려는 저자의 일관된 관점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를 더하게 된다.

5. 성평등의 사회학

이영자, 김예순, 민경자, 이정옥
공저, 안을 아카데미

기존의 사회학에서는, 다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양성을 함께 포함하는 사회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에 대한 연구는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별도의 영역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래에 여성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과" 식으로 기존의 사회과학 분석틀에 여성을 첨가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반면에 남성의 현실은 사회현실을 대변하는 일반적인 것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특별히 성을 명시하지 않는 모든 연구는 남성에 관한 것이 되어왔다. 또 여성의 현실은 남성의 현실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반화된 남성의 현실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성평등의 사회학』에서 저자들은 이러한 사회학의 남성중심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의 체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

한 그들의 모색은 성평등적 관점의 사회학으로 표현된다. 즉, 종래 사회학에서 비가시적이고 주변적인 여성의 현실을, 남성과 대등한 비중으로 현재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온 성이원론과 접근방법을 지양한다. 이는 두 영역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중시하여 생산과 재생산, 가정과 경제, 남성과 여성의 세계간의 상호 연계성을 중시하는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성평등적 사회학은 학문세계와 동시에 사회 현실에서의 성적모순을 지양하는 것에 역점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성억압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성불평등의 여성현실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로서 계급, 가족, 노동, 이데올로기의 네 분야를 다루고 있다. 먼저 제 1장 계급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여태까지의 주류를 형성했던 논의를 비판하며 '성평등적 관점'에서 사회를 재해석한다. 그 속에서 여성사회학자들은 계급간의 모순과 성적 모순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여성억압을 조장

하는지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제 2장 가족 부분에서는 가족에 대한 우리들의 환상(?)이 어떻게 가족 내에서 여성들을 교묘하게 억압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기존의 기능주의와 사회적 통념에 대한 비판으로 기존의 가족제도 및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고발한다. 또한 노동 부분에서는 기존의 고전경제학과 정통 맑시즘을 각각 비판하며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킨 사회주의 페미니즘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그들의 견해는 제 4장 이데올로기를 통해 그 결말을 맺게 된다. 저자는 문화를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와 연결시켜 재개념화하면서, 성불평등이 문화를 통해 생산, 재생산되는 메커니즘과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성평등의 사회학>은 사회 다방면에 있어서의 여성억압을 치밀하게 분석해 놓은 보기 드문 책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자들은 '계급과 성'이라는 두 가지 분석틀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원론적 한계에 빠져버리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6. 페미니즘 사상

- 로즈마리 통 저, 한신 문화사

광범위한 기초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적 관점들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은 그 밑에 여러 개의 종을 수용하고 있다. 그 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 수는 없지만, 모두는 아니라 해도 대부분의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자신의 접근방법을 대체로 자유주의적, 마르크스주의적, 급진적, 정신분석학적, 사회주의적, 실존주의적, 포스트모던적이라고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여성문제의 본질과 여성억압의 기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더욱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들이 존재한다.

여태까지 여성학 혹은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주로 이러한 사상적 조류들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많은 여성학적 관점 중에서 특정한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보편적이거나 초역사적인 원칙은 아니다. 이는 페미니즘이 끊임없이 사회적 현실과 그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반증되며, 그렇게 때문에 각각의 사상의 장단점을 총체적으로 이해해

야만 한다.

< 페미니즘 사상 >은 여러 가지 여성해방이론들을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어, 여성문제에 대한 나름의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먼저 제 1장에서는 여성운동사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 2장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모순인 계급모순이 여성문제와 갖는 연관성을 맑스주의 경제이론과 사회, 정치이론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제 3장과 4장에서는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고통에 대해서 가장 급진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던, 그만큼 여성운동의 지형에 있어 거대한 위치를 점유했던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을 소개한다. 제 5장에서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엄청난 비판을 받아온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논의를 그 시작으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을, 제 6장에서는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지나친 경제결정론적 관점을 비판하며 계급과 성의 두 가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유한다. 여기서는 각각 이원체제와 통합체제 이론이 소개된다. 또한 제 7장과 8장에서는 실존주의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관해 짧게 설명하고

▶ 법대 여학생회

추천도서

1.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이 책을 당연히 읽어야 할 여자

- '아니오'라고 말할 줄 모르는 여자
-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여자
- 칭찬에 껌벅 죽는 여자
- 모든 일에 완벽하려는 여자
- 성형수술을 계획중인 여자
- '여자는 시집만 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
- 여자로 태어난 것이 억울한 여자
-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는 여자
- 똑똑한 남자는 좋으나 똑똑한 여자는 싫은 여자

이 책은 '여성을 위한 모임'이라는 진보적이고 전문적인 단체가 지은 것으로 이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과 여성들의 본질을 알고자하는 많은 남성들을 겨냥한 작품이다. 깊은 학문적 연구와 다양한 사례, 날카로운 통찰이 경쾌한 문장으로 잘 표현되어

있으나, 이러한 논의들이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 책을 다 읽을 즈음이면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과 실천적인 고민들이 여러분들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여성학 도서를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 접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책이지만, 한 번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 하겠다. 단, 이 책을 읽은 후에 나는 이러한 관점들 중 어떠한 관점을 기계적으로 선택하겠다고 단정하지는 말자. 절대로!! 우리가 여성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갑갑한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무기를 갖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있다. '착한 여자 콤플렉스, 신데렐라 콤플렉스, 성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지적 콤플렉스, 딸콤플렉스, 슈퍼우먼 콤플렉스'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 무엇이 여성문제의 원인이고 무엇이 해결책 인지를 심도있게 파헤치고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책이다.



2. 무소의 별처럼 혼자서 가라

- 공지영 作 장편소설,

여기 세 여자의 삶이 있다.

- 해완, 그녀는 결혼을 하였으나 그로 인한 심한 박탈감을 경험하고 온갖 모욕을 무릅쓰고 이혼을 하여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이라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다.

- 경혜, 결혼을 한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정을 지키지만 바람피우는 남편에 맞서 자신도 바람을 피우고, 그러나 결국은 자기도 자신이 당하는 것을 똑같이 어떤 다른 여자에게 당하게 하고 있다는 괴로움에 사로잡힌다. 안정적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조차 결코 그녀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리고 영선, 그녀는 말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였으나 자신의 꿈에 대한 미련 역시 버리지 못하고 그 사이의 심한 갈등에 우울증, 알콜중독 등으로 자살을 기도하고 만다.

이들에게 특별히 못난 점이라고는 없었다. 상당한 미모에 능력있는 지성인,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단지 여자로 이땅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이다. 작가는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너무도 일상적인 이땅의 중산층 여성들의 삶을 통해, 이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이자 행복의 보금자리라는 가정을 통해, 단지 변두리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도 엄청난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들을 묘사한다. 그리고 작가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글을 맺는다.

"누군가와 더불어 행복해지고 싶었다면 그 누군가가 다가오기 전에 스스로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재능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면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 했다. 모욕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그녀 자신의 말대로 누구도 자신을 발뺌처럼 밟고 가도록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너무도 사실적인 묘사에 흥취한 진실의 나열이지만 그것이 더 아름다운 한편의 소설로, 그리고 아직까지 뚜렷한 문제의식의 부재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3.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

- 김명숙(前 동아일보 기자),

이 글은 저자가 10년간의 기자생활과,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독일에 건너가 그곳에서 보고느낀 여성들의 삶을 토대로 하여 한국이라는 사회에서의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1970년대부터 격렬한 여성해방운

동을 전개해 현재에 이르러서는 페미니즘의 성과물이란 '최저생존조건'일 뿐이라는 독일 여성들...그들의 어머니 세대들이 만들어낸 여남동등 의식, 동등 지위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성과, 차별없는 다양한 삶의 실현 가능성들은 '당연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현실에서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 - 가사노동문제 '주부'라는 여성, 동등이 아닌 종속으로서의 결혼생활, 시집살이, 여성의 생활, 직장여성으로서의 어머니, 여성의 지위와 제도적 문제, 정치적 차원에서 여성문제 - 등을 실례와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이 글은 각종 통계자료와 함께 언론의 성차별적 보도내용,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 등에 대한 문제, 법적 차원에서 올바른 해결방향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우리 사회보다 진일보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해온 서구의 몇몇 나라의 예를 직접 접할 수 있으므로 막연한 문제지적보다 실례를 통한 해결방안의 제시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생각된다.

'말은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언어는 남성의 언어이다.' 라고

필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 사회자체가 남성위주의 사회이고, 또 그에 너무나 당연하게 젖어있는 한국사회의 여성들에게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조차 해보려 하지 않는 것이 다수이다. 세대가 바뀌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그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나 근본적인 해결점이 나타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불만인 것이다.

이 글이 저자의 독일생활에서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쓰여진 것이고, 그들의 사회와 우리사회의 괴리감에서 오는 씁쓸함을 맛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자칫 막연한 외국생활에의 동경에 대한 낭만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저자 역시 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 여성운동의 방향제시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아직 과도기적 단계에서 시도해본 것이긴 하지만, 여남, 모부, 딸아들, 자매형제, 신부신랑, 숙녀신사하는 단어들 역시 성차별적 용어가 난무하는 이 사회의 일면을 느

끼게 해 주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생각된다.

4. 여성 노동론

- 다녔어! 에어코 저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밀접한 연관하에 발전해왔다. 한국역사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일본과의 교류와 경쟁과 침탈로 기록되고 있으며 한편, 일본에게도 일본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과 전진의 제국주의 침탈 그리고 전후 복구과정에서 한국은 빼놓을 수 없는 변수이다. 그런 까닭에 일본의 여성 노동 문제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한국에서 다시 재현되는 양상을 되풀이 해왔다.

역자는 일본 자본축적 초기의 여성 노동의 역사와 한국의 여성노동의 역사, 노동시장의 여성인력 흡수와 배제의 방식, 전체 사회의 성별 역할 분업 체계와 기본적 구도가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일본의 여성노동에 대한 본 연구서를 번역했다고 한다. 이 책은 한국과 닮아있는 일본의 여성노동에 대한 이론과 역사와 현실을 한 눈에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맑스주의 페미니즘에 기반을 두면서도

새로운 논의의 성과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뛰어난 점은, 여성의 사회적 노동을 논의하는데 있어 가사노동, 복지제도와 관련지어 논의를 진행시키며 경제 활동에의 참여 자체가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단순논리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 데에 있다.

이 책에서 필자는 결국 남녀고용평등은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그 안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으며 전체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에서 먼저 제정 개정된 여성 관련 노동관계법 역시 우리의 여성관련 노동법률과 유사하다. 이처럼 비슷한 현실상황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어온 시간제 노동과 파견근로제에 대한 논의 역시 일본에서 한 발 앞서 진행된 논의들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사회의 여성노동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여성학적 체험의 공간

여문연? 궁금하시죠??

● 여문연이란?

여성학의 대중적인 확산과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여학생위원회에서 매 방학중에 실시하는 여성학 세미나 공간

● 여문연 성원은?

여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게 싫다!

갑갑한 현실에서 무언가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꿈틀댄다!!

여성학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실천의지를 갖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환영합니다!!

● 여문연 구성은?

여성학 학습수준에 따라서

입문반과 심화반으로, 사회과학 학습수준에 따라서 각반을 세분화하며

각반 인원은 4-5명으로 한정.

A반 여성학 입문반, B반 여성학 심화반(1-학회반/ 2-심화반)

제 10기 여성문제연구회

여성학 커리소개

● A반 여성학 커리

1. 여성억압의 기원

[여자는 왜] 중 제 1부

2. 가족과 가사노동의 문제

[성평등의 사회학] 중 가족

[여성과 사회 창간호] 중 지상강좌

<가사노동,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김영희 씨

3.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새로운 사회학 강의] 중 제 11장 자본주의와 여성문제

4.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여성학 강의] 중 제 2장 여성해방론의 여러 흐름

[여성운동과 정치이론] 중 제 1부 여성문제의 본질과 형태

5.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

[여성운동과 정치이론] 중 제 3부 한국의 여성운동 연구

6. '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섹스북]

● B -1번 여성학 커리

1. 가족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중 제 2장

[여성과 한국사회] 중 제 5장

2. 가사노동

[여성과 사회 장간호] 중 지상강좌

< 가사노동에 관하여 > - 김영희 씨

[주부, 그 막힘과 트임에 관하여] 중 논설

3. 사랑, 결혼, 그리고 이혼

[새로쓰는 사랑 이야기] 중 조혜정 씨 논문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4.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그 원인과 실태 분석

[성평 등의 사회학] 중 노동

5.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이것이 성희롱이다.]

<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그 원인에 대한 고찰 > - 석순 제 9집

6. 여성운동과 여성해방이론의 조류

[안암내 여학생운동] - 제 5대 여위 제시

[여성운동과 정치이론] 중 제1부와 3부

● B -2번 여성학 커리

1. 가족주의에 대한 도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가족 바라보기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2. 가사노동의 문제점

[여성과 사회 장간호] 중 지상강좌

[여성과 한국사회] 중 제 7장

3. 자본주의와 여성노동문제

[성평 등의 사회학] 중 노동

<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 조순경 씨 논문

4. 성폭력의 개념과 원인 이해하기

[이것이 성희롱이다]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의 모색 > - 여성학논집 제 11집

<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그 원인에 대한 고찰 > - 석순 제 9집

5.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페미니즘 사상] 중 자유주의, 사회주의, 맑스주의, 급진주의이론 연구

6. 여성운동과 여학생운동

[안암내 여학생운동] - 제 5대 여위 제시

[여성운동과 정치이론] 중 제 3부 한국 여성운동 연구

[여성과 사회 제 3호] 사회민주주의하의 스웨덴 여성연구

[여성 제 2호] 변혁기 러시아 여성운동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중 스페인 여성운동



성폭력에

관한

법률 지식?

'3+1'의

환

상

적

체험

1. 시네 페미니즘의 분석을 위하여

시네 페미니즘(cine-feminism)은 기존의 페미니즘 운동이 정형화되고 경직된 사상적 조류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면서 태동하였다. 이것은 서구/백인/남성이 주체가 된 사회·문화예술현상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그로 인해 소외되어 온 제3세계/유색인종/여성이라는 집단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시네페미니즘이란, 대중심리를 조작하는 동시에 반영함으로써 보수적인 사회의 표준적 가치 규범을 반영해온 대중영화를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 혹은 대항으로서의 여성영화를 창조해내는 여성해방운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네 페미니즘은 기존의 영화매체가 생산해온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여성해방적 시각의 영화 독해에 집중한다.

초기의 시네페미니즘은 여성의 전형화된 이미지를 시대별로 기술하거나 경험론적으로 공통합수를 묶어 그 유

형을 기술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와 더불어 남성적 시각에 의해 구성된 영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영화에 침투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이를 통해 대안내지는 대항으로서의 여성영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로 영화텍스트 내부와 외부에 얽혀 있는 시각적 쾌락¹⁾이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진정한 여성영화란 여성을 물신 숭배적 대상²⁾으로 타자화시키는 기존의 성차별 영화의 담론이 갖고 있는 모순을 극복한 영화라고 정의내렸다.

70년대까지의 초기 시네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 영화비평과 이론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일반대중에게 인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주류영화의 메커니즘 자체가 남근중심적 사고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유지와 정당화에 있는 한, 기존의 메커니즘 안에서 진정한 여성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영화의 생산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초기 연구의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80년대 시네페미니즘 연구는 출발한다. 이중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여성 관객의 주체적 시선과 여성 관객의 시선이 느끼는 쾌락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영화텍스트 내부의 분석에만 집중되어온 기존 영화 연구의 범위를 텍스트 외부로 확대함으로써 텍스트를 결정짓는 사회문화적 요인들까지 관심분야를 확대하는 데 공헌했으며, 후에 가부장적 가치체계가 만들어낸 산물로서의 포르노그래피³⁾에 대한 연구와 여성의 동성에 연구로까지 확대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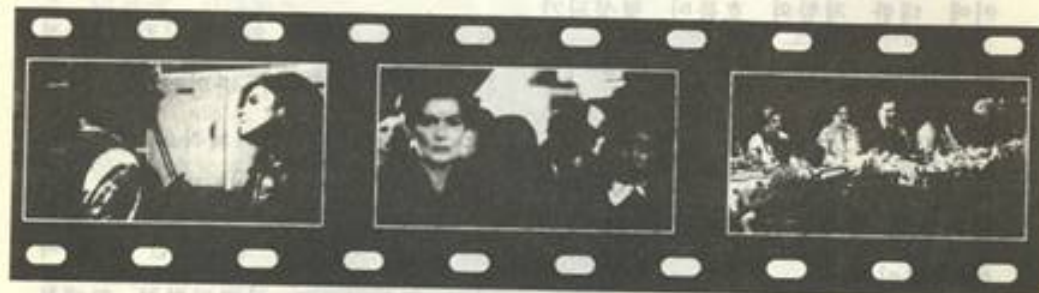
2. 영화 속의 여성상.

그리고 한국의 시네페미니즘

기존의 대중영화 속의 여성상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그려졌으며, 남성의 평가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어 왔다. 즉 영화 속의 여성은 남성에게 대하여 부차적인 존재로서 남성의 행동과 사고에 영감을 주는 인물로는 묘사되지만, 창조적인 주체성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으며, 항상 감정에 치우쳐 있는 비이성적인 인물상으로 묘사된다. 또한 카리스마적인 능동성을 지닌 여성은 예외적인 인물이며, '여성'이 아닌 인물로 인식된다. 한편 여성의 존재는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 조건지어져 현대사회의 섹스심볼로 표상되거나, 그것과는 극단적으로 상반

되는 정숙한 여인상으로 양분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대중영화 속에서 왜곡되어진 여성상은 이후 90년대로 들어서면서 기존의 시네페미니즘 연구의 발전을 통해 기존의 표상방식으로 부터의 탈출을 시도한다. 소수의 여성 감독의 등장과 더불어 그 흐름은 가속화되어, 기존 영화속에서 폄하되어진 여성들의 수동성과 의존성을 뛰어넘어 여성의 관점과 욕망을 표현하고, 새로운 여성상을 창출하게 되었다. 그

낭만적 사랑이라는 신화속에 갇혀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올란도> 역시 계급적 고려가 없는 독단적 페미니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서구에 비하여 시네페미니즘의 역사가 일천하고, 의식을 가진 여성감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적 장치가 전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진정한 여성 영화를 말한다는 것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



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끊임없이 진정한 여성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안을 수밖에 없다. 여성감독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페미니즘 영화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여성적인 경험을 공유한다고 모두 페미니즘 영화라고 할 수도 없다. 상업적인 페미니즘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분류되는 <피아노>는 침묵의 전략을 통해 가부장제의 폭력을 노출시키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을 것이다. 페미니즘 영화를 표방하며, 대중적인 주목을 받은 <개 같은 날의 오후> 속의 여성들은 감정적 분노의 표출 이상의 무엇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네페미니즘이 일련의 유행적 흐름으로 확대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상업주의에 쫓겨온 기존의 페미니즘 영화에 대한 반성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 대안의 출구를 신인여성감독들의 단편영화에서 찾으려 한다.

3. 왜 독립영화인가?

단편영화가 주를 이루었던 초창기 영화가 극장 스크린과 대중의 관계로 전환되면서 영화는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자본가와 감독간의 고용관계가 성립하면서 할리우드 영화가 탄생했고 고전적인 할리우드 양식의 영화제작과 동시에 영화의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초창기 영화의 주류였던 단편영화는 소외되고 배제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저항의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독립영화'이다. 이들 독립영화의 실험정신은 바로 자본주의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이며, 문화산업, 좁게는 산업화된 영화에 대한 저항이다.

일반적으로 독립영화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배경과 함께 자유로운 주제와 실험적인 형식적미를 창조하는 영화를 말한다. 그러나 국가적·시기적으로 그 정의는 유동적으로 변한다. 미국의 독립영화는 '인디펜던트 영화'로 불려진다. 이들 마이너 개념 영화의 장점은 내용과 형식에서 신선함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아방가르드4)적인 영화를 가리켜 독립영화라고 부르고 있으며, 정부의 제작지원과 배

급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독립영화는 제3세계 영화에서 그 전통을 찾을 수 있다.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는 70년대 말 프랑스 문화원과 독일문화원 내에 만들어졌던 영화 소모임에서 그 맹아를 발견할 수 있고, 이후 80년대를 거치면서 타부분 문화운동의 발전과 함께 '작은 영화', '열린 영화', '민족 영화' 등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성장해왔다.

일반적으로 독립영화는 산업화된 영화에 대한 저항을 의도화시킨 창작정신 전반을 통칭하며, 단편영화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영화제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분류는 독립영화를 진행중인 과정-따라서 결과적으로 장편영화의 형태를 택할 수도 있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완결된 새로운 형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립 영화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단편과 장편 중 어떤 형식이 순수성을 지켜내는 데 적합한지의 판단 또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물론 장편영화가 태생적으로 가지게 되는 예산적인 문제가 고려되는 한에서의 이야기이다.)

4. 지금 우리가

단편 '여성'영화를 말한다

7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여성 영화와 여성 감독의 지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70년대 여성감독의 경우 제도권 영화보다는 독립영화, 주류영화보다는 대항영화, 상투적인 극영화보다는 실험적인 내러티브5)와 다큐멘터리에 중심을 두었다. 둘째, 스튜디오와 제작자의 끊임없는 간섭과 제지를 받으며 작업해야하는 기존의 영화에 비하여 시나리오

의 구성과 집필, 영화의 촬영과 편집의 전 과정이 자유로운 독립영화의 형태가 몇몇 여성영화인들에

의해 8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독립영화를 통한 여성영화의 제작이 활성화되었던 것은 그 의식의 연결고리가 동일하다는 데에 있다. 남성중심적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을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파악한다면 여성영화가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정신에서 출발한 독립영화와 교차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이제 고무신 관객, 손수건 부대 혹은 아줌마 부대라고 폄하되어

온 여성관객들에게 그에 걸맞은 소중한 이름을 돌려주고, 젊은 여성 나아가 남성관객들과의 연대를 통해 여성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영화를 보고 토론하면서 여성이 영화와 맺어온 복합적인 관계를 진지하게 사고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영화를 여성의 친구이자 동지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을 잡아주십시오. 영화를 통한 연대가 삶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유토피아로 가는 길은 비록 먼 길일지 모르나

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씩씩하게 그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제 1회 서울 여성영화제 선언문 발췌)



4월 11일 개막된 '서울여성영화제(Women's Film Festival In Seoul)'는 남성중심적 상업주류영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영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대안과 대항으로서의 여성영화를 모색하는 장이었다. 수 만의 관객들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누었던 이 행사에서 무엇보다도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획일화되고 관성화된 기존의 메이저 여성영화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신인여성감독들

의 단편영화들이었다. 총 33편의 출품작 중 10편의 단편영화가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그 중 <WELCOME>, <한 거울 이야기>를 비롯한 3편이 우수상을 시상하였다. 우리가 이들 작품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화려한 촬영기법과 영화의 매끄러운 완성도가 아니라, 그 신선한 주제의식과 컨셉트일 것이다. 제5대 여학생위원회는 사이비 여성영화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소규모예산을 활용하여 감독의 대안적인 주제의식을 명쾌히 드러내 준 이번 서울여성영화제의 단편영화들이 가진 역사적 의의에 주목하고, 이 영화들이 '진정한 여성영화란 무엇인가'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고대의 2만 학우들에게 이들 단편여성영화를 소개하려 한다.



주1) 영화가 제공하는 쾌락중의 하나가 바로 시각적 쾌락이다. 시각적 쾌락은 보여지는 쾌락이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해 얻는 쾌락이다. 프로이트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세 가지 에세이(Three Essays on Sexuality)>에서 시각쾌락을 '타인을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라고 규정하였다. 남성은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 이분화된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의해 남성시선은 여성을 에로틱한 노출자로서 규정한다. 이러한 결과로 여성은 영화속에서는 남성동장인물의 즐거움을 위한 에로틱한 외모를 지닌 여성으로서, 영화밖에서는 극장의 관객을 위한 성적 자극의 대상으로 기능하게 된다.

주2)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남성은 필연적으로 거세 콤플렉스를 지니게 된다. 거세 공포 증은 여성의 외적인 남근부재를 통해 표면화된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게 거세 공포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이것의 극복을 위해 남성은 여성을 평가절하하고 처벌함으로써 공포를 상제-이것은 곧 새디즘(가학증)과 연결된다-시키거나, 거세공포를 완전 부정하기 위하여 여성을 육체적 아름다움을 지닌 신적인 대상으로 숭배하게 된다.

주3)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는 흔히 포르노(porno)로 약칭되는 것으로, 인간의 성적 행위의 묘사를 주로 한 도색적인 영화·회화·사진·소설을 통틀어 일컫는다.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페미니즘적 연구는 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성에 내재된 사회적 권력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각 페미니즘 조류의 의견이 다르다.

주4) 아방가르드(avant-garde)란, 제 1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기성 예술과 전통을 부정하면서 발전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등의 전위적인 예술운동을 이른다.

주5) 내러티브(narrative) : 이야기체. 꾸며낸 것이든 사실적인 것이든 하나의 이야기를 연속된 장면으로 구조화시키는 장치. 전통적으로 구성(plot)과 서술(narration)을 통합해서 말한다. 따라서 내러티브 영화란 주로 이야기 전개 자체에 중점을 둔 영화를 뜻한다.

참고 도서

- 유지나·변재환(1993), <페미니즘/영화/여성>, 여성사.
- 김소영(1996), <시네마, 테크노 문화의 푸른 꽃>, 열화당.
- 김수기(1994), '포르노에 대한 다른 시각', <섹스, 포르노, 에로티시즘: 코락의 악몽을 넘어서>, 문화연구 7. 현실문화연구.
- 이경미(1995), '포르노그래피 논쟁의 성적 의미', <석순 12집>.
- KINO, December. 1996
- KINO, May. 1997
- CINE21, 1997. 04. 29
- 오늘에감 3호, 1995. 5.29
- 주유신(1996), '영화 속의 여성 이미지', <여성과 사회 7호>
- 제 1 회 서울 여성영화제 자료집

동네 餘者들



남은 자들은 할 말이 있다

남은 자들은 할 말이 있다. 주류로부터 떨어져 나온 摘出者인 그녀들은 나름의 할 말이 있다. 사회적 상승욕구를 대변하는 엘리베이터라는 공간 안에서 그것이 좌절되는-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는-순간, 그녀들은 그 交通을 시작한다.

1. 그녀는 평범하다.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매의 모습이다. 그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의 삶은 시뮬전 고무장갑 속에 갇혀있다. 대중매체가 대변하는 사회구조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고무장갑에 의한 포위를 강요한다. 새로운 고무장갑, 새로운 고무장갑.-새로운 억압, 새로운 억압. 허물지 않는 견고한 억압의 사슬. 그녀에게 희망은 없다. 그녀는 남성주류의 사회에서 소외된 '아줌마'일 뿐이다.

2. 그녀는 재단되어 있다.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 난자된 여성상이 그녀를 움켜쥔다. 매력적이지 못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女子'가 아니다. 그녀는 남성들에 의해 '왜곡된 주류'-상품화된 매력적인 여성상-로부터 소외된다. 그를 소외시키는 것은 왜곡된 주류세계로 편입한 새로운 포로들이 아니라 분열된 여성상을 고착화시킨 남성중심의 사회일 뿐이다.

3. 그녀는 외친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는 더 이상 그녀의 외침을 듣지 못한다. 시대적 주류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녀는 쫓기고 있다. 변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겹데기가 남고 진보는 사라졌다. 가부장제의 허울은 여전히 현존한다. 그녀는 시대주류로부터 소외된 이방자일 뿐이다.

..... 그들은 남은 자들이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그녀들의 상실감은 대리만족의 기대심리로 엘리베이터에 투영된다. 그것은 멈추고 기대는 무너졌다. 우연히도 동질적인 감정의 찌꺼기를 안고 있는 그녀들은 동일한 충격속에서 드디어 눈이 맞았다(?). 세 여성의 만남은 객체화되었던 자아의 상실감을 독백하면서 시작한다. 그녀들의 과거의 경험은 각기 다른 상황전개속에서 파편화되어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련의 고백을 통해 동일성을 획득한다. 이를 통해 소외로 인한 상실감의 원형은 한 곳으로 귀착된다. 억압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원천은 바로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사회였으며, 그것을 유지시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

있다.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고 그녀들은 변화한다.

1. 그녀는 자아획득을 시도한다. 현모양처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 그녀에게는 이제 희망의 푸르스름한 색이 돌아왔다.

2. 그녀는 난자된 여성상을 복원한다. 36-24-36의 허상은 이제 그녀의 눈으로 다시 그려진다. 남성들이 만들어낸 시각적 쾌락은 이제 여성의 시선으로 다시 읽혀진다. 그녀는 자아정체성을 획득한 주체적 여성이 되었다.

3. 그녀는 타협하지 않는다. 남성중심적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보수세력과의 타협을 거부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주류로부터 소외되지만, 자아로부터 소외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주류가 된다.

상 승을 통해 주류세계로의 편입을 기대하게 했던 엘리베이터가 파괴된다. 더 이상 그것은 상승하지 않는다. 상승은 이제 그녀들의 추종대상이 아니다. 주류로의 편입은 그녀들을 영원히 비주류로 남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류의 시각에서 규정된 비주류의 '餘者'들은 이제 주체성을 획득하고 가부장적 주류를 거부하는 '女子'들이 되었다.

● 감독: 모지은

● 16mm, 10분, 컬러, 극영화

● 제 1회 서울 여성영화제 단편영화 부문 본선 진출작

생강

— 그녀는 그녀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



현실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다. 거창한 구호와 치열한 이론은 더 이상 이상과 동행하지 않는다. 삶은 투사로서의 인회를 강동한다. 그녀는 그저 '애엄마' 이고, '마누라'일 뿐이다. 그단절의 노정에서 그녀는 '대한민국의 민중'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각인한다.

인 회의 동지였을 사람들이 안방에서 '고매한' '노동'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녀는 부엌에서 '저열한' 가사'노동'을 수행한다. 결혼 전의 이상과 결혼 후의 현실은 남편이 달아버리는 방문과 함께 분리된다...그녀는 그녀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이른 아침 인회가 정신없이 준비한 남편의 밥그릇 속에는 가난한 털실하나가 빠져있다. 그것은 다시 남편의 '짜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아내의 '변명'으로 빠져든다. 이 가난한 털실

은 투사로서의 이상과 여성으로서의 현실을 가른다. 그리하여 그녀를 가른다. ...그녀는 그녀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노란옷을 입은 청소부 한 명이 그녀와 다룬다. 그녀는 직업적 의무를 주장하고, 그는 대가를 요구한다. 그녀는 이상을 주장하고, 그는 현실을 요구한다. ...그녀는 그녀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남편 태성에게 삐삐가 온다. 그 여성은 그의 동지이며, 그녀의 동지'였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의심한다. 그녀가 의심하는 것은 그 여성이 아니라, 그녀의 현실이다. ...그녀는 그녀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태성이 화를 낸다. '여자가 집구석을 팽개치고 어딜 나돌아다니는지' 그는 모른다. 그는 인경에게 삐삐를 건네 받는다. 그는 외부와의 소통을 되찾는다. 동시에 그녀는 외부와의 단절로 회귀한다. ...그녀는 그녀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비오는 오후, 딸 들쭉이가 유난히 비겁다. 그녀로부터 단절된 그녀가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간다.

■ 그녀는 '그녀'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현재의 그녀'는 '과거의 그녀'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주부로서의 그녀는, 거창한 구호를 함께 외치고 난해한 이론을 토론했던 옛 동지들과, 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던 민중들과, 뜻을 같이했던 남편에게서 단절되어 있다.

그녀의 이상은 현실속에 흡수되지 못하고 좌절된다. 그녀의 본분은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일 뿐,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은 아니다. 노동해방을 위해 싸우는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을 외면하고, 육아노동을 외면하며, 임금노동을 외면한다. 자본가의 종(?)인 그는 아내의 주인이다. 그러나 -아마도- 남편은 이러한 불유쾌한 지위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동안의 단절양상은 관객들에게 서서히 그 실재를 보여

준다. 그녀의 단절은 소통과 이해를 중단하고, 이중적인 모습-태성이 외치는 구호와 상반된 그의 생활-을 보이는 남편으로부터 비롯되지는 않는다. 단절이 시작된 그곳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버티고 있었으며, 불행(?)하게도 하필이면 그 결혼을 하는 여자였던 것이다. 결혼후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온갖 차별과 억압이 곳곳이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성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경험한 그녀로부터의 검은 단절은 파란 우산과 함께 다시 그녀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 속에 갇혀있는 검은 단절은 파란 '외출'로 승화될 수 있을까.....

● 감독 : 정지우

● 16mm, 14분, 컬러, 극영화

● 1996년 11월 제 3회 서울 단편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예술공헌상,

젊은 비평가상 수상작

한 거울 이야기

—그리하여, 거울은 자유롭게 있다.—



거울은 거울을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거울로 향한다. 그리하여 거울 속에는 다시 거울이 있다. 수많은 거울이 서로를 반영한다. 그렇게 돌려져진 거울들의 중앙에는 무형의 권력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 칭한다. 수많은 거울이 그것을 반사하고 서서히 그 존재를 자각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울의 반란이 시작된다.....

부와 권력을 지닌 햄릿이 오필리아를 소유하고, 그녀를 삭제했던 일련의 행동들은 우리의 저 위대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창조해낸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의 서글픈 종결체이다. 가부장적 권력의 중심부에 서있는 햄릿과,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필리아는 가부장적 사회가 구성한 이 진부한 스토리에 충실한 배우들이었지만, 참으로 '발칙'하게도 여주인공 오필리아는 작가의 의도에 대하여 당당

한 일탈을 시도한다. 남성중심적 사회의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작가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 즉물적 달콤함에 속아 주체성을 사기당해왔는가. 오필리아는 자아의 반영체이자, 그 해묵은 줄거리의 충실한 관객이었던 자신의 거울을 통해 그 본질을 고발한다. -거울은 그것에 투영된 생명체의 감정과 행위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영생의 存物이다. 그리하여 오필리아의 초역사적인 생존을 가능케한다.

낭만적 사랑의 각본은 수세기를 지나도 견고하다. 남성중심적 사회가 그 영악한 생명력을 지닌 그 줄거리는 불변하며, 따라서 그 결론도 동일하다. 수세기 전에 오필리아가 행했던 그 배역을 이제는 20세기의 '진희'가 행위하고 있다. 20세기의 햄릿인 '영빈'은 가부장적 사회라는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 鈍痴한 배우이다. 철저히 비극적이어야 할 여배우들의 대면을 비의도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이다-영빈은 오필리아의 거울을 진희에게 건네준다-. 그 만남은 가장 긴장된 순간에 발생한다. 진희의 고통과 좌절이 심화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포기를 감동하는-그녀는 립스틱으로 자신의 목을 베어내는 행동을 한다-순간에 오필리아가 등장한다. 오필리아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거울속에서 눈을 뜨고, 진희의 거울을 통해 진희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눈을 뜨게한다.-거울을 바라보는 진희의 눈은 진희의 거울이다.

오필리아의 거울은 진희의 거울에 반사된다. 진희의 거울은 다시 오필리아의 거울에 반사되고, 그 반사는 다시 관객의 거울에 반사된다. 그렇게 수많은 거울이 서로를 반사한다. 그 거울들의 중앙에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무형으로 존재한다. 무형의 그것이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은 바로 거울의 반사가 이미지를 소통하고 서로를 의식시키면서 마침내 주체의 자각이 이루어질 때이다.

3개의 화면으로 구성된 멀티비전 속에는 수많은 신데렐라가 존재한다. '미녀와 야수', '사랑과 영혼', '보디가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속의 신데렐라, 그리고 그녀의 유리구두, 화려한 드레스, 백마탄 왕자님이 '고발' 된다. 가부장제의 마력은 거울의 주체성을 은폐하고 억압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모든 여성들은 주체적이고 싶어한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내 눈으로 나를 보'고 싶어하며, '난 죽지 않아' 라고 스스로의 의식을 단련시킨다. 하지만 그녀들은 '누군가의 눈으로 보고 있었으며, '그들의 숭배와 경멸'을 끊임없이 의식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갔다.

이러한 거울들의 죽음은 거울들의 소통과 자각속에서, 폭로와 고발이 '반사'되는 순간 드디어 축출된다. 그리고 마침내 거울은 춤을 춘다. 거울의 춤은 거울을 부른다. 거울은 거울과 만나 함께 부활한다. 춤추는 거울들은 또다른 거울의 춤을 반사하고 싶다. 그리하여 자유롭게 살고 싶다.

주요 영화의 이동시점은 거울이다. 당신은 오필리아와 같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녀는 이미 당신들의 거울-눈-속에 들어가 있다. 영화의 시작부터 당신은 이미 '반사'를 통한 교감, 그리고 '해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 감독 : 김시경

● 16mm, 17분, 컬러, 극영화

● 제 1 회 서울 여성영화제 단편영화부문 우수작품상 수상작

WELCOME

—천만에, 우리는 당신들을 환영한다.—



외 창하고 따스한 초여름. 우리는 일상의 억압으로부터 면죄부를 부여받은 듯한 세명의 여성들의 조곤한 말머들을 첫장면에서 대면한다. 평온하고 공교한 그녀들의 일상은 우리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후 영화는 한 여성의 두려움과 조바심, 수치심의 파편과 마주하면서 앞에서 본 세 여성들의 평온을 축출한다.

장소는 평범한 남녀공용화장실 안. '생리적 찌꺼기들을 배출하고 싶은 동물들은 다 모이시오' 라고 공인되어 있는 그곳 앞에서 한 여성이 안절부절못하며 주눅들어 있다. 관객들의 호기심은 이내 야릇한 미소로 이동된다. 화장실안의 한 남성. 그는 두다리로 당당히 '서서' 남성용 용변기를 마주보고 있다. 그 당당함은 이윽고 아주 씩씩한 휘파람으로 변형되고, 작고 은폐된 그 공간은 그 당당함을 구석구석까지 균질하게 흡수하고 있다. 용변기와와의 만남이 끝난 남성은 자아의 표상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울앞에서, 일련의 생리적 과정을 통해 다시한번 검증된 자신의 권력을 대면한다. 그리하여 그는

여유롭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문 앞의 움츠려든 애소한 피권력자에게 다가가 있다. 여전히 그녀의 시선은 직선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上向은 더더욱 아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상대적 권력'이 남긴 당당함의 잔향속으로 들어간다. '획일화된 독방'. 그 속에 '앉은' 그녀는 드디어 몸살짓(?)을 저지른다. 좌변기 속으로 떨어지는 赤花. 그것은 '너의 책임'이고, 숨겨야 할 부끄러운 천형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내 그녀는 하얀 생리대까지 꺼내들고 있다. 이윽고 관객들에게 자각되는 또하나의 호기심- 이 '완전범죄'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동시에 이 범죄자에게 들려오는 정교한 발소리는 그녀의 손길을 멈추게 한다. 그것은 일탈적 행동을 하고 있던 아이의 두려움이 그것을 금기시하는 권력자의 등장으로 인해 폭발되는 것과 동일한 행동양식이다. 여성의 본능적 생리기능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천형으로 규정지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이 여성에게 그 가부장적 권력의 퇴장을 숨죽여 '기다리게' 만든다. 이 사회의 이중적 성규범-남성과 여성의 생리기능에 대한 찬양과 억압의 논리-의 시혜자인 그 남성이 가졌던 당당함과 자유로움은 이내 곧 세 명의 여성의 등장과 함께 그로부터 축출된다. 이와함께 이전까지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구석구석을 지배하던 그 작은 공간은 네명의 여성들이 만들어낸 동질감으로 가득차게 된다.

남녀공용화장실'은 '남녀공용사회'의 축소판이다. 그 곳은 인간들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모든 몸짓-언어와 행위-이 더이상 요구되지않는 공간이며, 2차적 상징들이 가져오게 되는 소통의 불완전성과 가공성의 위험이 사라진 공간이다. 그렇다면 생리적 본능과 그 분출의 욕구만이 자리하는 이 공간에서 모든 몸짓은 순수한 것이며, 그것은 또한 철저하게 개인적일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이 영화속의 공간은 지극히 개인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은 공간이다. 단순히 화학적인 악취 뿐만이 아니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악취가 함께 부유하는 그 공간에서 여성은 자아의 성에 대한 주체적 소유를 이루지 못하고, 억압과 소외의 독방에 감금되어 버린다. 결국 밀폐된 여자화장실은 수치스럽고 더러운(?) 적화를 뿌리는 여성을 감금하는 공간으로 상징화된다. 반면 이 속의 남성들은 남성적 권력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담배를 흡입하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시혜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는 자아의 당당함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이러한 여성의 소극성과 피억압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동질적 경험과 감정으로 일체화된 여성들은 극 후반부에서 집단화된다. 이것은 단순히 집단화된 여성들이 개인화된 남성에게 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반부에서 한 여성이 보여주는 수동성과 소극성은 개인적 성향-그리하여 그 여성 개인의 문제가 되는-때문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규정되는 성적 이데올로기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영화의 후반부는 보여주고 있다. 네 명의 여성들이 동시에 집중하는 일관된 시선은 바로 '우리의 억압자인 남성'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시선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향한 분노와 저항의 시선이다. 남성중심적 사회의 축소판인 남녀공용화장실(W.C.)안의 이 여성들은 모든 남성을 배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에'(welcome) 그녀들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과 남성을 '환영'(welcome)한다.

● 감독 : 장희선

● 16mm, 14분, 컬러, 극영화

● 제 1회 서울 여성영화제 단편영화 부문 우수작품상 수상작

부모성 함께쓰기 선언운동

"우리의 가족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가부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들, 손자, 딸 손으로 승계 되는 호주제, 부계 혈통만을 중시한 동성동본혼 제도, 여성이 남성의 집안에 시집가도록 되어 있는 부가(夫家)입적 제도,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관습,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라는 강요한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가족 제도의 불평등은 사회에서의 남녀 불평등의 기반이 되고 있다. 여성을 남편의 피부양자 역할에 취급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 여성을 임시직, 보조직 등 주변부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명백한 사회적 재생산이라 할 수 있는 임신, 육아의 부담을 개별 여성,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돌리는 사회제도 등이 모두 남성 중심의 가족관, 가족 제도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것이다."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문 발췌

이 성제에서는 지난 3.8 여성 대회에서 '부모성 함께 쓰기'를 선언하였다. 이 운동은 아버지의 성과 가족의 혈통을 동일시하는 가부장적 현 사회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이러한 성차별적인 구조를 타파해 나아가려는 실천적인 운동이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함으로써 혈통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신념은 생물학적 의미의 혈통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의 성씨제도를 혼돈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의 기반은 성(姓)과 가족 혈통을 동일시하여 혈통을 바꿀 수 없는 만큼 성도 바꿀 수 없다는 성불변(性不변)의 원칙이며, 이

는 남성 중심적인 가족 제도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성은 개, 돼지만이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상징하듯 한국사회에서 부계혈통은 여성을 차별하는 온상이라 할 수 있다.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은 이러한 남성중심의 가족 제도와 이로 인한 가부장적 인식 구조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다.

우리는 자녀들이 출생과 더불어 부성을 따르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성은 단지 부계 혈통의 표지로서 혈연집단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제도로 존재해 왔을 뿐이다. 그 예로 세계 여러 민족이나 종족집단은 그들의 가족제도에 따라 다양한 성씨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부계 혈통을 가문존속의 기반으로 삼는 집단에서는 부성이나 남편 성만을 강요하는 반면, 모계혈통을 가족계승의 기반으로 삼는 집단에서는 모계 성을 따른다. 그러나 순수한 모계계승의 가족제도는 극히 소수 사회에서만 존속되어 왔으며, 부계혈통 계승의 가부장제가 그 동안 대다수 사

이렇듯 현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는 성차별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성의 권력만을 강요하는 속에서 한 성은 배앓음을 당하는 것이다.

회를 지배해 왔다. 또한 원시 모계사회의 유산으로 부모 양계를 혼합하거나 사양립시키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성씨를 통한 가계계승의 제도 없이 이름만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성씨제도가 있다는 것은 성이 생물학적 기반을 지닌 혈통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제도로서의 성씨제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절대적이기 보다는 상대적임을 보여준다.

1990년부터 실시된 개정 가족법은 기존에 문제시되던 호주상속제도를 어느 정도 약화시켰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장남만이 호주상속의 권리가 있었으며,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에 반해, 개정 가족법은 장남도 호주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게 했으며,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현행법상 남편은 자신

의 혼외자녀를 부인의 승낙 없이 입적시킬 수 있는 것에 반해 부인의 경우 남편의 동의 없이 혼외자녀를 입적시킬 수 없다. 이처럼 개정 가족법은 여전히 남성의 가부장으로서의 권력을 인정함으로써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문제에 있어서 법 제도의 문제와 사회적 인식의 관계는 상호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화되어 고착화된 여성권의 무시와 박탈의 행위들은 전 사회적인 영역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인식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항상 아버지의 성을 따름으로써 자녀는 온연중에 아버지의 권위가 어머니의 그것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을 주입 받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인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성차별의 양상을 만들어 낸다. 즉 가족, 제도에서의 성차별은 사회 제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한다.

아버지의 성만을 인정하는 현재의 가족 제도는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삼는 가부장제적 제도의 유산인 것이다. 이렇듯 현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는 성차별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 성의 권리만을 강요하는 속에서 한 성은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다.

『부모 성 함께 쓰기』라는 하나의 실천을 통해 당연하게 생각하던 주변의 성차별의 현실에 문제제기하고 이를 변화시킬 힘을 모아보자.

행사일정 한눈에 보기



단편 여성 영화제

5월 19일 (월) 늦은 6시, 경영대 신관 강당
〈동네여자들〉, 〈생강〉, 〈한 겨울 이야기〉, 〈WELCOME〉

성인식 강연회

5월 20일 (화) 늦은 6시, 서관 202 강의실
〈대학인의 성인식과 성문화〉
강사 : 조영미 (이대, 경희대 여성학 강사)

성교육비디오 상영

5월 19, 20일 (월) 12시부터
정대 강통 앞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5월 19, 20일 (월) 12시 부터
정대 강통 앞
동참자 영단 함께 보기

연세대학교 (101)